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0. No. 1, 1999

儒門事親의 攻下理論과 醫案의 硏究*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실

權 保 亨

Ⅰ. 緖 論

儒門事親은 金元四大家의 一人인 張從正의 著書로 張從正의 字는 子和이고 號는 戴人이며 1156年부터 1228年까지 生存한 醫家로 알려져 있다. 儒門事親은 全 15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前三卷은 張의 自撰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의 門人인 麻知幾, 常仲明 등 後人이 編成하여 一書로 이루었다고 하며, [四庫全書總目提要·子部醫家類]에서는 儒門事親에 대해 "儒者能明其理, 事親者當知醫"라 解說하여 놓고 있다[1,2,3].

當時의 時代的 背景은 隋唐以後 長生과 房中術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丹砂, 硫黃 등의 金石燥熱한 藥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宋·金·元으로 國家의 主體가 變化되는 過程에 兵火가 해마다 계속돼 瘟疫이 流行하면서 熱病이 많았고, 醫療에 있어서는 補劑와 溫燥한 藥物의 사용이 많았다고 한다[1].

張의 醫學思想의 特徵은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의 理論을 중심으로 劉完素의 學說을 繼承하였으며, 그의 六氣致病의 理論에 따라 各種疾病이 六淫의 邪氣에 의하여 發生한다고 認識하고 疾病을 風·寒·暑·濕·燥·火의 六門으로 구분하였다[1,2]. 즉 疾病이 六淫 邪氣의 侵入으로 發生하게 되면 邪氣를 救濟하는 것으로 주된 治療原則을 삼고, 그 구체적인 方法으로 張의 醫學思想의 核心인 汗·吐·下 三法을 제시하고 있어 後世 攻下派란 이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2,3]. 이 三法의 學問的 根據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으며, 汗法은 "因其輕而揚之", 吐法은 "其高者因而越之", 下法은 "其下者引而竭之"에 각각 그 意味를 두고 있다[1,4]. 病證은 風·暑·火·熱·濕·燥·寒·內傷·內積·外積의 十形으로 나누어 論述하였으며, 書 中에는 三法의 學術見解와 各科 多種 病症의 臨床實例를 詳細히 紹介하면서 그의 論述과 創見을 밝혀 놓고 있다[1,2]. 또한 臨床 各科에 걸쳐 많은 醫案을 記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神經精神科와 關聯된 疾患의 精神療法도 多數 附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筆者는 神經精神科 疾患에 있어 七情所傷으로 因한 痰火熱이 病因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또 治療에 있어서도 汗吐下 三法이 重要하게 언급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張의 儒門事親에 記載된 三法의 醫理와 張의 辨證論治가 記錄된 醫案의 硏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되어, 그의 硏究를 通해 약간의 知見을 얻어 報告하는 바이다.

Ⅱ. 硏究方法

1. 儒門事親의 內容 중에서 醫學理論部分은 汗吐下 三法에 關聯된 內容을 中心으로 하였으며, 醫案은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內容을 主要 硏究 主題로 삼았다.

2. 原文의 全般的인 理解를 돕기 위해 原文에 解釋을 加하였고, 引用文句는 최대한 原書를 찾아 내용을 비교하였다.

* 본 논문은 1999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논문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Ⅲ. 研究內容

1. 汗下吐三法該盡治病詮

@ 原文 : 人身不過表裏 氣血不過虛實 表實者裏必虛 裏實者表必虛 經實者絡必虛 絡實者經必虛 病之常也 良工之治病者 先治其實 後治其虛 亦有不治其虛時 粗工之治病 或治其虛 或治其實 有時而幸中 有時而不中 謬工之治病 實實虛虛 其誤人之迹常著 故可得而罪也 惟庸工之治病 純補其虛 不敢治其實 擧世皆曰平穩 誤人而不見其迹 渠亦自不省其過 雖終老而不悔 且曰吾用補藥也 何罪焉 病人亦曰 彼以補藥補我 彼何罪焉 雖死而亦不知覺 夫粗工之與謬工 非不誤人 惟庸工誤人最深 如鯀湮洪水 不知五行之道 夫補者人所喜 攻者人所惡 醫者與其逆病人之心而不見用 不若順病人之心而獲利也 豈復計病者之死生乎 嗚呼 世無眞實 誰能別之

@ 解釋 : 身은 表裏에 不過하고 氣血은 虛實에 不過하니 表가 實하면 裏는 반드시 虛하고 裏가 實하면 表가 반드시 虛하며, 經이 實하면 絡이 반드시 虛하고 絡이 實하면 經이 반드시 虛한 것이 病의 日常이다. 良工의 병고침은 먼저 實을 治療한 후에 虛를 治療하고 또한 虛할 때는 治療하지 않음이 있다. 粗工의 병고침은 혹은 虛를 治療하고 혹은 實을 治療하여 어떤 때는 다행히 適中하나 어떤 때는 適中하지 못한다. 謬工의 병고침은 實을 實하게 하고 虛를 虛하게 하여 사람을 그르치는 痕迹이 항상 따라다니니 이는 罪가 되는 것이다. 庸工의 병고침은 순수하게 虛를 補하고 감히 實을 治療하지 못하여 세상사람들이 모두 平穩하다하고 사람을 그르쳐도 痕迹을 보이지 않으며 그도 스스로 過失을 깨닫지 못하고 늙어서도 後悔하지 않으며 또한 말하기를 내가 補藥을 쓴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한다. 病人 역시 말하기를 그가 補藥으로 나를 補했으니 어찌 罪가 되겠는가하며 비록 죽더라도 알지 못한다. 무릇 粗工과 謬工은 사람을 그르치지 않음이 없지만 오직 庸工의 사람 그르침이 가장 甚하여 물고기가 큰 물을 흐리는 것 같으니 五行之道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릇 補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攻伐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데 醫師가 病人의 마음을 거슬러서 藥을 쓰지 않는 것의 害가 病人의 마음을 좇아서 利益을 取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어찌 病者의 死生을 計算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세상에 眞實이 없으니 누가 能히 區別하겠는가.

@ 解說 : 良工, 粗工, 謬工의 部分은 [黃帝內經素問·上古天眞論]에 記載된 眞人, 至人, 聖人, 賢人의 內容과 [八正神明論]의 "上工救其萌芽 必先見三部九候之氣 盡調不敗而救之", "下工救其已成 救其已敗"의 內容에서 그 根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4], 攻伐이 補에 우선함은 "治病先攻邪 邪去而後言補"하는 張의 治療原則을 살펴볼 수 있는 內容으로 思料된다.

@ 原文 : 今余著此吐汗下三法之詮 所以該治病之法也 庶幾來者 有所憑藉耳 夫病之一物 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速去之可也 攬而留之可也 雖愚夫愚婦 皆知其不可也 及其聞攻則不悅 聞補則樂之 今之醫者曰 當先固其元氣 元氣實 邪自去 世間如此妄人 何其多也 夫邪之中人 輕則傳久而自盡 頗甚則傳久而難已 更甚則暴死 若先論固氣元氣 以補劑補之 眞氣未勝而邪已交馳 橫騖而不可制矣 惟脈脫下虛 無邪無積之人 始可議補 其餘有邪積之人而議補者 皆鯀湮洪水之徒也 今子論吐汗下三法 先論攻其邪 邪去而元氣自復也 況予所論之法 識練日久 至精至熟 有得無失 所以敢爲來者言也

@ 解釋 : 이제 내가 이 吐汗下三法之詮을 써서 治病의 法을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憑藉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病이라는 것은 人身이 원래 가진 것이 아니라 혹 바깥에서 들어오고 혹 안에서 생기기도 하니 모두 邪氣이다. 邪氣가 몸에 加해지면 빨리 攻伐하거나 빨리 去하게 해서 머무르게 함이 가한데, 愚夫愚婦가 모두 그 不可한 것만을 알아 攻伐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고 補를 들으면 즐거워한다. 지금의 醫師들은 먼저 元氣를 堅固하게 하여 元氣가 實해지면 邪는 스스로 간다고 하였다. 世間에 이와 같이 사람을 妄靈되게 하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가. 무릇 邪가 사람에게 適中함에 있어 가벼우면 스스로 命을 다하고, 자못 甚하면 낫기 어렵게 되고, 많이 甚하면 갑자기 死亡하게 된다. 만약 元氣를 堅固하게 하자고 論하여 補劑로 補하면 眞氣가 아직 이기지 않았는데 邪가 이미 橫行하여 制約할 수 없다. 오직 脈脫下虛하고 無邪無積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補할 수 있고 나머지는 邪積이 있는 사람인데 補를 말하는 것은 모두 물고기가 큰물을 흐리는 무리이다. 이제 吐汗下三法을 論함은 먼저 그 邪를 攻擊하여 邪가 去하면 元氣가 스스로 回復되니 내가 말하는 法을 알고 연마하여 오래되면 至精至熟하게되어 得은 있으나 失은 없게 된다.

@ 解說 : [黃帝內經素問·標本病傳論]에서 標本은 先後를 뜻하는 것으로 先病은 本이 되고 後病은 標가 된다고 하였으며, 先後標本의 다름을 잘 살펴 治療에 있어 治本을 爲主로 한다고 하였다[4]. 張은 疾病의 發生過程 및 治法에 있어 自外而入, 自內而生한 것은 邪氣에 의한 것이니 吐汗下法으로서 攻伐한다고 하였고 補法은 오직 脈脫下虛한 狀態에만 適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邪氣의 發生에 의하여 虛症이 나타난 경우 本은 邪氣의 發生이므로 先論攻其邪 邪去而元氣自復이란 表現이 可能한 것으로 생각된다.

[憑藉:빙자] 남의 힘을 빌어서 의지함. 내세워서 핑계함[5].

@ 原文 : 天之六氣 風暑火濕燥寒 地之六氣 霧露雨雹冰泥 人之六味 酸苦甘辛鹹淡 故天邪發病 多在乎上 地邪發病多在乎下 人邪發病 多在乎中 此爲發病之三也 處之者三 出之者亦三也 諸風寒之邪 結搏皮膚之間 藏于經絡之內 留而不去 或發疼痛走注 麻痺不仁 及四肢腫痒拘攣 可汗而出之 風痰宿食 在膈或上脘 可湧而出之 寒濕固冷 熱客下焦 在下之病 可泄而出之

@ 解釋 : 하늘의 六氣는 風暑火濕燥寒이고 땅의 六氣는 霧露雨雹冰泥이며 사람의 六味는 酸苦甘辛鹹淡이니 天邪가 發病하면 주로 上에 있고 地邪가 發病하면 주로 下에 있으며 人邪가 發病하면 주로 中에 있다. 이것이 發病의 세가지이니, 處置하는 것도 세가지요, 그것을 나오게 하는 것도 세가지이다. 風寒之邪는 皮膚之間을 結搏하고 經絡之內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或 疼痛, 麻痺不仁 및 四肢腫痒拘攣을 발하니 汗하게 하면 나온다. 風痰宿食은 膈이나 上脘에 있으니 湧하게 하면 나온다. 寒濕固冷 熱客下焦하면 下에 있는 病이니 泄하게 하면 나온다.

@ 解說 : 張은 外感邪氣와 內生邪氣가 疾病의 發生發展에 決定的 因素로 작용하며 邪氣가 二部에 適中하였을 때 서로 같지 않은 症狀과 轉歸過程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風寒之邪는 六淫邪氣의 侵入에 의하여 發生되는 天邪로 汗法을 사용하고, 風痰宿食은 內生邪氣에 의해 發生되는 人邪이며 吐法을 사용하고, 寒濕固冷 熱客下焦는 轉歸의 結果로 形成된 地邪로 下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原文 : 內經散論諸病 非一狀也 流言治法 非一階也 至眞要大論等數篇 言運氣所生諸病 各斷以酸苦甘辛鹹淡 以總括之 其言補 時見一二 然其補非今之所謂補也 文具于補論條下 如辛補肝 鹹補心 甘補腎 酸補脾 苦補肺 若此之補 乃所以發腠理 致津液 通血氣 至其統論諸藥 則曰辛甘淡三味爲陽 酸苦鹹三味爲陰 辛甘發散 淡滲泄 酸苦鹹涌泄 發散者歸于汗 涌者歸于吐 泄者歸于下 滲爲解表歸于汗 泄爲利小溲歸于下 殊不言補 乃知聖人止有二法 無第四法也 然則聖人不言補乎

@ 解釋 : 內經에서 諸病을 論한 것은 한 形狀이 아니고 治法을 말해 놓은 것도 일정치가 않다. 至眞要大論 등 數篇에서 運氣로 所生하는 諸病을 말하고 각각 酸苦甘辛鹹淡으로 나눴으니 總括해보면 補를 말한 것은 한두개에 불과하고 또 그 補는 지금 所謂 말하는 補가 아니다. 補論條下에 辛補肝 鹹補心 甘補腎 酸補脾 苦補肺라 했는데, 이와 같은 補는 發腠理 致津液 通血氣하는 것이고 諸藥을 統論하면 辛甘淡 三味는 陽이고 酸苦鹹 二味는 陰이다. 辛甘은 發散하고 淡은 滲泄, 酸苦鹹은 涌泄하니, 發散者는 汗에 歸屬하고 涌者는 吐에 歸屬하고 泄者는 下에 歸屬하고 滲은 解表하면서 汗에 歸屬하고 泄은 利小溲하면서 下에 歸屬한다. 補를 달리 말하지 않음은 聖人이 二法에 그치고 第四法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즉 聖人은 補를 말한 것이 아니다.

@ 解說 : [黃帝內經素問·藏氣法時論]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心欲耎 急食鹹以耎之 用鹹補之 甘瀉之.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用苦瀉之 甘補之.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4].

[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 夫百病之生也 皆生於風寒

暑濕燥火 以之化之變也. …… 帝曰 五味陰陽之用何如. 岐伯曰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4].

@ 原文 : 曰蓋汗下吐 以若草木治病者也 補者 以穀肉果菜養口體者也 夫穀肉果菜之屬 猶君之德敎也 汗下吐之屬 猶君之刑罰也 故曰德敎興平之梁肉 刑罰治亂之藥石 若人無病 梁肉而已 及其有病 當先誅伐有過 病之去也 梁肉補之 如世已治矣 形措而不用 豈可以藥石爲補哉 必欲去大病大瘵 非吐汗下未由也已 然今之醫者 不得盡汗下吐法 各立門墻 誰肯屈己之高而一問哉 且予之三法 能兼衆法 用藥之時 有按有蹻 有捴有導 有減有增 有續有止 今之醫者 不得予之法 皆仰面傲笑曰 吐者瓜蒂而已矣 汗者麻黃升麻而已矣 下者巴豆牽牛朴硝大黃甘受芫花而已矣 旣不得其術 從而誣之 予固難與之苦辨 故作此詮 所謂三法 可以兼衆法者 如引涎漉涎 噓氣追淚 凡上行者 皆吐法也 炙蒸熏漯洗熨烙 針刺砭射 導引按摩 凡解表者 皆汗法也 催生下乳 磨積逐水 破經泄氣 凡下行者 皆下法也 以余之法 所以該衆法也 然予亦未嘗以此三法 遂棄衆法 各相其病之所宜而用之 以十分率之 此三法居其八九 而衆所當纔一二也 或言內經多論鍼而少論藥者 蓋聖人欲明經絡 豈知針之理 卽今著吐汗下三篇各條 藥之輕重寒溫于左 仍於三法之外 別著原補一篇 使不預三法 恐後之醫者泥于補 故置之三篇之末 使用藥者知吐中有汗 下中有補 止有三法 內經曰 知其要者 一言而終 是之謂也.

@ 解釋 : 汗下吐는 草木으로 病을 고치는 것이고, 補하는 것은 穀肉果菜로 口體를 기르는 것이다. 무릇 穀肉果菜의 部類는 君主의 德敎요 汗下吐의 部類는 君主의 刑罰이다. 故로 德敎는 復興시키는 좋은 고기요 刑罰은 治亂하는 藥石이다. 만약 사람이 無病하면 梁肉일 따름인데 病이 있으면 마땅히 그 過失을 먼저 攻伐하고 病이 去하면 梁肉으로 補하니 어찌 藥石으로 補를 할 수 있는가. 大病大瘵를 去하고자 하면 吐汗下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 醫師들은 汗下吐法을 다 얻지 못하여 각기 主張을 세우니 누가 자기를 굽히는데 肯定하여 一問하겠는가. 또한 나의 三法은 衆法을 아우를 수 있는데 用藥時에도 살피는 것이 있으면 건너뛰는 것이 있고, 자르는게 있으면 引導하는 것이 있고, 減하는 것이 있으면 늘리는 것이 있고, 계속됨이 있으면 그침이 있다. 지금 醫師들은 나의 法을 얻지 않고 모두 고개를 들어 비웃기를 吐者는 瓜蒂일 따름이고 汗者는 麻黃 升麻일 따름이고 下者는 巴豆 牽牛 朴硝 大黃 甘受 芫花일 따름이라 하여 그 기술을 배우지 않고 좇아서 더럽힌다. 내가 진실로 苦辨을 함께 하기 어려워 이 詮을 지으니 所謂 三法은 衆法을 겸할 수 있어서 가령 引涎漉涎하고 噓氣追淚하니 上行者는 모두 吐法이요, 炙蒸熏漯洗熨烙 針刺砭射 導引按摩 등 解表者는 모두 汗法이요, 催生下乳 磨積逐水 破經泄氣 등 下行者는 모두 下法이다. 나의 法은 衆法을 말한 것이나 내가 또한 이 三法을 맛보지 못했다가 드디어 衆法을 버리고 각기 病의 宜當한 바를 좇았으니 이 三法이 十分에 八九요 衆法은 一二에 該當한다. 內經에서 鍼을 많이 論하고 藥을 조금 論한 것은 聖人이 經絡을 밝히고자 함이니 針의 理致를 알면 吐汗下 三篇의 各條에 藥의 輕重寒溫은 左에 있고 三法外에 따로 原補 一篇을 지어 三法에 참여시키지 않고 後世 醫師가 補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三篇의 끝에 위치시켰다. 用藥者는 吐中有汗 下中有補를 알면 三法에 그칠 수 있다. 內經에 "知其要者 一言而終"이라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 解說 : 張은 무릇 藥이라는 것은 毒이 있으니 비록 甘草, 苦蔘이라 해서 毒이 없다는 것은 不可하고 久服하면 必有偏勝하여 夭折하게 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病蠲之後 莫若以五谷養之 五果助之 五畜益之 五菜充之 相五臟所宜 勿使偏傾可也"라 하면서, 이를 일러 "養生當論食補 治病當論藥攻"이라고 說明하였다.

2. 凡在上者皆可吐式

@ 原文 : 夫吐者 人之所畏 且順而下之 尙猶不樂 況逆而上之 不說者多矣 然自胸已上 大滿大實 病如膠粥 微丸微散 皆兒戲也 非吐病安能出 仲景之言曰 大法春宜吐 蓋春時陽氣在上 人氣與邪氣亦在上 故宜吐也 涌吐之藥 或丸或散 中病則止 不必盡劑 過則傷人 然則四時有急吐者 不必直待春時也 但仲景言其大法耳 今人不得此法 遂廢而不行 試以名方所記者略數之 如仲景傷寒論中 以葱根白豆豉湯 以吐頭痛 梔子厚朴湯 以吐懊憹 瓜蒂散 以吐傷寒六七日 因下後腹

滿無汗而喘者 如此三方 豈有殺人者乎 何今議予好涌者多也

@ 解釋 : 吐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순리대로 밑으로 내려가야 하나 상태가 좋지 못하고 더욱이 厥逆하게 되어 위로 치받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가슴부터 위쪽으로 大滿大實하고 膠粥 같은 것이 있어 丸散劑에 效果가 微弱한 病은 吐法이 아니면 능히 安定시킬 수 없다. 仲景이 말하기를 봄에는 마땅히 吐法을 쓰는 것이 大法이니, 春時에는 陽氣在上하고 人氣과 邪氣도 역시 在上하고 있는 故로 마땅히 吐法을 쓴다고 하였다. 涌吐의 藥은 丸劑나 散劑 모두 病이 나으면 그치고 過度하게 藥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過하면 사람을 傷하게 한다. 그러나 四時에 急症이 있어 吐法을 써야 할 때는 반드시 春時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지 仲景은 그러한 大法이 있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法은 모른 체 弊端만을 따르고 行하지 않는다. 試驗삼아 名方으로 기록된 것을 간략히 분류하면 仲景은 傷寒論 中에서 葱根白豆豉湯으로 吐하게 하여 頭痛을 治療하였고, 梔子厚朴湯으로 吐하게 하여 懊憹을 治療하였으며, 瓜蒂散으로 吐하게 하여 傷寒六七日에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였다. 下法을 잘못 사용한 後 腹滿無汗而喘하는 症狀에 위의 三方을 投與한다고 해서 어찌 殺人한다고 하겠으며, 또 어찌 내가 吐法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 解說 : 吐法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其高者因而越之"라고 言及한데 起源하고[4], [傷寒論]에서는 吐法이 七條가 있으며 傷寒邪結胸中한 것은 瓜蒂散으로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吐法處方의 嚆矢가 되었다[6]. 또한 張은 "夫吐者人之所畏 且順而下之 尙猶不樂 況逆而上之 不說者多矣"라 하여 後人이 吐法이 逆으로서 順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傷寒論] 166. 病如桂枝證, 頭不痛, 項不强, 寸脈微浮, 胸中痞硬, 氣上衝咽喉, 不得息者, 此爲胸有寒也. 當吐之, 宜瓜蒂散.

79. 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者, 梔子厚朴湯主之.

@ 原文 : 且仲景之論 胸上諸實鬱 而痛不能愈 使人按之及有涎唾下痢十餘行 其脈沈遲 寸口脈微滑者 此可吐之 吐之則止 仲景所謂胸上諸實 按之及有涎唾者 皆邪氣在上也 內經曰 下痢脈遲而滑者 內實也 寸口脈微滑者 上實也 皆可吐之 王冰曰 上盛不已 吐而奪之 仲景曰 宿食在上脘 當吐之 又如宿飮酒積在上脘者 亦當吐之 在中脘者 當下而去之 仲景曰 病人手足厥冷 兩手脈乍結 以客氣在胸中 心下滿而煩 欲食不能食者 知病在胸中 當吐之 余嘗用吐方 皆是仲景方中瓜蒂散 吐傷寒頭痛 用葱根白豆豉湯 以吐雜病頭痛 或單瓜蒂 名獨聖 加茶末少許 以吐痰飮食 加全蝎梢 以吐兩脇肋刺痛 濯濯水聲者 內經所謂濕在上 以苦吐之者 其是謂歟

@ 解釋 : 仲景의 論은 胸上諸實鬱되어 痛症이 있지만 낫지 않으면 使人按之하여 有涎唾 下痢十餘行 脈沈遲 寸口脈微滑할 경우 吐法을 쓸 수 있는데 吐하게 하면 病이 낫는다고 하였다. 仲景이 언급한 胸上部가 實하여 按하면 有涎唾한다는 것은 邪氣가 모두 上部에 있기 때문이다. 內經에 이르기를 下痢로 脈遲而滑한 것은 內實한 것이며 寸口脈微滑한 것은 上實한 것으로 모두 吐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王冰이 말하기를 上盛한 것이 그치지 않으면 吐而奪之하라 하였고, 仲景이 말하기를 宿食在上脘한 것은 마땅히 吐之한다고 하였으며, 또 宿飮 酒積 같은 것이 上脘에 있어도 역시 吐之하고, 中脘에 있는 것은 마땅히 下而去之한다고 하였다. 仲景이 또 말하기를 病人手足厥冷 兩手脈乍結한 것은 客氣在胸中하여 心下滿而煩 欲食不能食하는 것으로 病在胸中한 것으로 알고 마땅히 吐之한다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사용한 吐方은 모두 仲景의 處方 中 瓜蒂散이니, 傷寒頭痛에는 葱根白豆豉湯으로 吐하게 하여 雜病頭痛을 治療한다. 或 單瓜蒂를 이름하여 獨聖이라하고 茶末을 약간 더해 痰飮食을 吐하게 하고, 全蝎梢를 더해 吐法으로 兩脇肋刺痛을 治療한다. 濯濯水聲者는 內經에 濕在上한 것이라 일렀으니 苦味로서 吐之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 解說 : [傷寒論] 324. 少陰病, 飮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不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者,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6]. 이는 胸中에 痰涎 등의 實邪로 인한 阻塞이 있어 飮食이 입에 들어가면 吐하고, 먹지 않을 때도 胸中이 울렁거려 吐할 것 같으나 끝내는 痰涎이 膠滯하여 吐하려고 하나 吐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手足寒은 胸陽이 痰濁으로 阻遏되어 四肢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55. 病人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 脈乍緊은 胸中의 實邪가 阻滯로 인하여 陽氣가 사방으로 輸布되지 못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瓜蒂散은 傷寒論 중에 모두 三條가 있다(166, 324, 355條)[6].

@ 原文 : 頃有一工 吐陳下一婦人 半月不止 涎至數斗 命懸須臾 倉皇失計 求予解之 予使煎麝香湯 下咽立止 或問麝香何能止吐 予謂之曰 瓜苗聞麝香卽死 吐者瓜蒂也 所以立解 如藜蘆吐者不止 以葱白湯解之 以石藥吐者不止 以甘草貫衆解之 諸草木吐者 可以麝香解之 以本草考之 吐藥之苦寒者 有豆豉瓜蒂茶末梔子黃連苦參大黃黃芩 辛苦而寒者有鬱金常山藜蘆 甘苦而寒者 有地黃汁 苦而溫者 有木香遠志厚朴 辛苦而溫者 有薄荷芫花 辛而溫者 有穀青草葱根鼢辛而寒者 有輕粉 辛甘而溫者 有烏頭附子尖 酸而寒者 有晉礬綠礬蘆汁 酸而平者 有銅碌 甘酸而平者 有赤小豆 酸而溫者 有飯漿 酸辛而寒者 有膽礬 酸而寒者 有靑鹽白米飮 辛鹹而溫者 有皂角 甚鹹而寒者 有滄鹽 甘而寒者 有牙硝 甘而微溫且寒者 有參蘆頭 甘辛而熱者 有蝎梢 凡此三十六味惟常山膽礬瓜蒂有小毒 藜蘆芫花輕粉烏附尖有大毒 外二十六味 皆吐藥之無毒者 各對證擢而用之 此法宜先小服 不滿積漸加之

@ 解釋 : 근래 한 醫師가 오래된 것을 吐하도록 시킨 一婦人이 있었는데 半月不止하고 涎至數斗의 症狀이 나타나 생명이 위독해져 어찌 할 바를 몰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내가 麝香湯을 다리게 하여 마시도록 하니 곧 나았다. 或 麝香이 어찌해서 능히 吐하는 것을 멈추게 하냐고 물어와 내가 말하기를 瓜苗가 麝香의 냄새를 맡으면 卽死하니, 吐의 원인은 瓜蒂이니 곧 풀리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如藜蘆吐者不止는 葱白湯으로 解之하고, 石藥吐者不止는 甘草로 解之하며, 諸草木吐者는 麝香으로 解之한다. 本草로서 생각해보면 吐藥 중 苦寒한 것은 豆豉 瓜蒂 茶末 梔子 黃連 苦參 大黃 黃芩이 있고, 辛苦而寒한 것은 鬱金 常山 藜蘆가 있고, 甘苦而寒한 것은 地黃汁이 있고, 苦而溫한 것은 木香 遠志 厚朴이 있고, 辛苦而溫한 것은 薄荷 芫花가 있고, 辛而溫한 것은 穀靑草 葱根鼢가 있고, 辛而寒한 것은 輕粉이 있고, 辛甘而溫한 것은 烏頭 附子尖이 있고, 酸而寒한 것은 晉礬 綠礬 蘆汁이 있고, 酸而平한 것은 銅碌이 있고, 甘酸而平한 것은 赤小豆가 있고, 酸而溫한 것은 飯漿이 있고, 酸辛而寒한 것은 膽礬이 있고, 酸而寒한 것은 靑鹽 白米飮이 있고, 辛鹹而溫한 것은 皂角이 있고, 甚鹹而寒한 것은 滄鹽이 있고, 甘而寒한 것은 牙硝가 있고, 甘而微溫且寒한 것은 參蘆頭가 있고, 甘辛而熱한 것은 蝎梢가 있으니 무릇 이것이 모두 三十六味이다. 오직 常山 膽礬 瓜蒂가 有小毒하고, 藜蘆 芫花 輕粉 烏附尖이 有大毒하며, 이외 二十六味는 모두 毒이 없는 吐藥이다. 각기 證에 맞게 사용하되 처음에는 小服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점차 增加시켜 나간다.

@ 解說 : 張이 常用한 催吐藥物 36種은 그 性이 寒한 藥이 太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味는 酸苦한 것이 主가 되어 涌泄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原文 중 小毒藥物에서 銅碌 全蝎이 除外되어 있으며, 張의 催吐藥物의 使用法은 口服 外에 漉涎法이 있으니 이는 鼻內에 藥汁을 滲入하여 吐하게 하는 것으로 中風不省人事 牙關緊閉 등을 治療하는데 적용되고 三聖散이 이 例에 속한다. 引涎法은 鷄羽 등으로 자극을 주어 催吐作用을 유발시키는 方法이고, 噓氣法은 散劑를 鼻內에 불어넣어 噴嚏나 出血이 發生되도록 하는 것이니 모두 吐法에 속하는 것이다[1].

@ 原文 : 余之撩痰者 以釵股雞羽探引不出 以藍投之 投之不吐 再投之 且投且探 無不出者 吐至昏眩 愼勿驚疑 書曰 若藥不瞑眩 厥疾弗瘳 如發頭眩 可飮冰水立解 如無冰時新汲水亦可 强者可一吐而安 弱者可作三次吐之 庶無損也 吐之次日 有頓快者 有轉甚者 蓋引之而吐未平也 俟數日 當再涌之 如覺渴者 冰水新水瓜梨柿及涼物 皆不藥 惟禁食食過飽硬物乾脯難化之物 心火旣降 中脘冲和 陰道必强 大禁房勞 大憂悲思 病人旣不自責 衆議因而噪之 歸罪于吐法 起謗其由此也 故性行剛暴 好怒喜淫之人 不可吐 左右多嘈雜之言 不可吐 病人頗讀醫書 實非深解者 不可吐 主病者不能辯邪正之說 不可吐 病人無正性 妄言妄從 反覆不定者 不可吐 病勢巉危 老弱氣衰者 不可吐 自吐不止 亡陽血虛者 不可吐 諸吐血嘔血咯血衄血嗽血崩血失血者 皆不可吐 吐則轉

生他病 寢成不救 反起謗端 雖懇切求

@ 解釋 : 나의 撩痰法은 叙股 雞羽로 자극해도 나오지 않는 것은 藨를 投與하고 그래도 吐하지 않으면 再投之한다. 재차 投與하면 出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吐하여 昏眩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書에 이르기를 만약 藥에 瞑眩現象이 나타나지 않으면 厥疾이 낫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만약 頭眩이 나타나면 冰水를 마시면 곧 풀리고 冰水가 없으면 새로 길어온 물을 줘도 된다. 强者는 한번 吐하면 안정되나 弱者는 세 차례 吐하게 하여야 하니 그래도 害는 없다. 吐한 다음날 멍한 느낌이 있는 者는 甚해지는 것이니 引之而吐한 것이 아직 평안해지지 않은 것이다. 數日을 기다려 再涌之하면 된다. 만약 渴症을 느끼는 사람은 冰水 新水 瓜 梨 柿와 같은 涼物을 줄 수 있으니 모두 藥은 아니다. 오직 貪食과 硬物 乾脯와 같은 消化되기 어려운 飮食을 過食하는 것은 禁하고, 心火를 내리고 中脘을 조화롭게 하면 陰道必强하게되므로 大禁房勞하여야 한다. 大憂悲思하고 난 후 病人은 대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가 원인을 강구하여 떠들썩하게 한 후, 吐法에 그 罪를 돌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헐뜯는다. 故로 性行剛暴하고 好怒喜淫之人은 吐法을 쓰는 것이 不可하고, 左右에서 번잡스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吐法을 쓰는 것이 不可하고, 病人이 醫書를 읽으나 실제로 그 깊이가 없는 사람은 不可吐하고, 主病의 邪正을 辨別하기 힘든 것도 不可吐하고, 病人이 바른 性情이 없으며 妄言妄從 反覆不定하는 사람도 不可吐하고, 病勢巉危 老弱氣衰者도 不可吐하고, 自吐不止 亡陽血虛者도 不可吐하고, 모든 吐血 嘔血 咯血 衄血 嗽血 崩血 失血者도 不可吐하는데, 吐하게 되면 轉生他病 寢成不救하여 도리어 원망과 책망이 일어난다. 비록 정성을 다하여 求해내도 삼가 강력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解說 : 張의 撩痰法에서 撩는 擒縱卷舒라 하여 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고 쥐고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바로 痰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 비녀나 새털로 자극을 주어 吐하게 만드는 引涎法이 제시되었고, 吐法의 禁忌症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였다.

@ 原文 : 必標本相得 彼此相信 眞知此理 不聽浮言 審明某經某絡 某臟某腑 某氣某血 某邪某病 決可吐者 然後吐之 是予之所望于後之君子也 庶幾不使此道湮微 以新傳新耳

@ 解釋 : 반드시 標本을 얻고, 彼此 서로 믿고, 진실로 이 理致를 알고, 떠도는 말을 듣지 않으며, 某經某絡 某臟某腑 某氣某血 某邪某病인지 세심히 살펴 吐하는 것이 可한지 결정한 후에 吐시키면, 바로 이것이 내가 후세의 후배에게 바라는 바이다. 거의 이러한 방법이 혼란스러워졌으니 새로이 하여 傳할 뿐이다.

3. 凡在表者皆可汗式

@ 原文 : 風寒暑濕之氣 入于皮膚之間而未深 欲速去之 莫如發汗 聖人之刺熱 五十九刺 爲無藥而設也 皆所以開玄府而逐邪氣 與汗同 然不若以藥發之 使一毛一竅 無不啓發之爲速也 然發汗亦有數種 世俗止知惟溫熱者爲汗藥 豈知寒涼亦能汗也 亦有薰漬而爲汗者 亦有導引爲汗者 如桂枝湯 桂枝麻黃各半湯 五積散 敗毒散 皆發汗甚熱之藥也 如升麻湯 葛根湯 解肌湯 逼毒散 皆辛溫之藥也 如大柴胡湯 小柴胡湯 柴胡飮子 苦寒之藥也 如通聖散 雙解散 當歸散子 皆辛涼之藥也 故外熱內寒宜辛溫 外寒內熱宜辛涼

@ 解釋 : 風寒暑濕之氣가 皮膚之間에 入하였는데 아직 깊지 않으면 速히 去하는 방법으로 發汗法 만한 것이 없다. 聖人의 刺熱은 五十九刺이나 藥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開玄府함으로서 逐邪氣한다고 하였으니 汗法과 더불어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만약 藥으로 發汗하지 않으면 一毛一竅로 하여금 發汗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發汗法으로는 數種이 있는데, 世俗에서는 오직 溫熱한 것만을 汗藥으로 알고 있으니 어찌 寒涼한 藥이 능히 發汗할 수 있음을 알겠는가. 또한 薰漬法과 導引法으로도 發汗을 할 수 있다. 桂枝湯 桂枝麻黃各半湯 五積散 敗毒散 같은 藥은 모두 發汗甚熱之藥이고, 升麻湯 葛根湯 解肌湯 逼毒散 같은 藥은 모두 辛溫之藥이고, 大柴胡湯 小柴胡湯 柴胡飮子 같은 藥은 모두 苦寒之藥이고, 通聖散 雙解散 當歸散子 같은 藥은 모두 辛涼之藥이다. 故로 外熱內寒은 마땅히 辛溫시키고 外寒內熱은 마땅히 辛涼시킨다.

@ 解說 : 汗法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因其輕而揚之, ……, 其有邪者, 漬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라고 언급한데 起源하며[4], 張은 仲景과 河間의 辛溫·辛凉解表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아 疏散外邪作用을 하는 모든 治法을 汗法으로 歸納하였다. 發汗法의 방법으로는 藥物을 이용한 방법 외에 灸, 蒸, 熏, 漬, 洗, 熨, 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 등도 汗法에 속한다고 하였으니[1], 이는 解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發汗作用을 하는 藥物에 있어서 張은 辛溫, 辛熱, 苦寒, 辛凉의 四種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임상에 있어 辛溫·辛凉解表의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에 대해 張은 少壯氣實之人, 冒寒食冷而得者, 稟性怒急者, 兩手脈浮大者는 辛凉解之한다고 하였고, 老耆氣衰之人, 疫勞冒暑而得者, 稟性和緩者, 兩手脈遲緩者는 辛溫解之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素問·刺熱篇]은 全篇이 熱病을 治療하는 刺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原文 : 以本草校之 荊芥香白芷陳皮半夏細辛蒼朮 其辛而溫者乎 蜀椒胡椒茱萸大蒜 其辛而大熱者乎 生薑其辛而微溫者乎 天麻葱白 其辛而平者乎 青皮薄荷 其辛苦而溫者乎 防己秦艽 其辛而且苦者乎 麻黃人參大棗 其甘而溫者乎 葛根赤茯苓 其甘而平者乎 桑白皮 其甘而寒者乎 防風當歸 其甘辛而溫者乎 附子 其甘辛而大熱者乎 官桂桂枝 其甘辛而大熱者乎 厚朴 其苦而溫者乎 桔梗 其苦而微溫者乎 黃芩知母枳實地骨皮 其苦而寒者乎 前胡柴胡 其苦而微寒者乎 羌活 其苦辛而微溫者乎 升麻 其苦甘且平者乎 芍藥 其酸而微寒者乎 浮萍 其辛酸而寒者乎 凡此四十味 皆發散之屬也 惟不善擇者 當寒而反熱 當熱而反寒 此病之所以變也

@ 解釋 : 本草로는 荊芥香 白芷 陳皮 半夏 細辛 蒼朮은 辛溫한 것이오, 蜀椒 胡椒 茱萸 大蒜은 辛大熱한 것이오, 生薑은 辛微溫한 것이오, 天麻 葱白은 辛平한 것이오, 青皮 薄荷는 辛苦溫한 것이오, 防己 秦艽는 辛苦한 것이오, 麻黃 人參 大棗는 甘溫한 것이오, 葛根 赤茯苓은 甘平한 것이오, 桑白皮는 甘寒한 것이오, 防風 當歸는 甘辛溫한 것이오, 附子는 甘辛大熱한 것이오, 官桂 桂枝도 甘辛大熱한 것이오, 厚朴은 苦溫한 것이오, 桔梗은 苦微溫한 것이오, 黃芩 知母 枳實 地骨皮는 苦寒한 것이오, 前胡 柴胡는 苦微寒한 것이오, 羌活은 苦辛微溫한 것이오, 升麻는 苦甘平한 것이오, 芍藥은 酸微寒한 것이오, 浮萍은 辛酸寒하니 무릇 이 四十味는 모두 發散之屬이라. 오직 잘못 善擇하는 것은 마땅히 寒할 것을 反熱하는 것과 마땅히 熱할 것을 反寒하는 것이니 이것은 病을 變하게 하는 바가 된다.

@ 解說 : 張이 常用하는 發散藥物 40種은 益氣(例 人參), 養血(例 當歸, 大棗), 溫陽(例 附子), 溫中(例 胡椒, 厚朴) 및 기타 配伍할 수 있는 發散藥物로 構成되어 있으며, 주로 津液을 表部로 散布하는 작용을 하는 藥物인데, 간접적으로 發汗의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原文 : 仲景曰 大法春夏宜汗 春夏陽氣在外 人氣亦在外 邪氣亦在外 故宜發汗 然仲景擧其略耳 設若秋冬得春夏之病 當不發汗乎 但春夏易汗而秋冬難耳 凡發汗欲周身縈縈然 不欲如水淋漓 欲令手足俱周 遍汗出一二時爲佳 若汗暴出 邪氣多不出 則當重發汗 則使人亡陽 凡發汗中病則止 不必盡劑 要在劑當 不欲過也 此雖仲景調理傷寒之法 至於雜病 復何異哉 且如傷寒麻黃之類 爲表實而設也 桂枝湯之類爲表虛而設也 承氣湯 爲陰虛而設也 四逆湯 爲陽虛而設也 表裏俱實者 所謂陽盛陰虛 下之則愈 表裏俱虛者 所謂陰盛陽虛 汗之則愈也 所謂陽爲表而陰爲裏也 如表虛亡陽 發汗則死 發汗之法 辯陰陽 別表裏 定虛實 然後汗之 隨治隨應

@ 解釋 : 仲景이 말하기를 春夏의 大法은 汗이니 春夏에는 陽氣在外하고 人氣 역시 在外하며 邪氣 또한 在外하는 故로 마땅히 發汗法을 써야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仲景이 그 다스리는 法을 들어 설명하기를 秋冬에 얻은 春夏의 病은 마땅히 不發汗이니 春夏에는 땀을 내기가 쉽고 秋冬에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릇 發汗이란 온몸을 縈縈하게 하는 것이지 물이 淋漓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手足에 땀이 차일 정도인 一二時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만약 汗暴出하였는데도 邪氣多不出하여 거듭 發汗하게된즉 사람으로 하여금 亡陽하게 한다. 무릇 發汗이 病에 적중하면 그치고, 반드시 藥을 다 먹일 필요는 없으니, 요점은 處方을 하는데 있어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仲景이 傷寒의 調理法을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 雜病에 이르러 다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傷寒에 있어 麻黃之類는 表實에, 桂枝湯之類는

表虛에, 承氣湯은 陰虛에, 四逆湯은 陽虛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表裏俱實者는 所謂 陽盛陰虛한 것이니 下之한즉 낫게되고, 表裏俱虛者는 所謂 陰盛陽虛한 것이니 汗之한즉 낫는다고 하였다. 所謂 陽은 表가 되고 陰은 裏가 되니, 만약 表虛亡陽한데 發汗하면 죽게된다. 發汗法은 陰陽을 辨別하고 表裏를 區別하며 虛實을 바로 안 然後에 汗之하는 것이니 이를 隨治隨應이라 한다.

@ 解說 : [傷寒論] 95.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營弱衛强, 故使汗出, 欲救邪風者, 宜桂枝湯[6]. 衛는 陽에 속하고 營은 陰에 속하며, 體表에 風邪의 侵襲을 받게 되면 衛陽은 밖으로 浮盛해져 發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衛强때문이다. 衛氣가 風邪로 인해 强해졌다면 腠理는 疏鬆하여 치밀하지 못한 것이니 營氣는 外衛를 잃게 되어 汗出하게 되고, 汗은 營氣가 변화된 것으로 汗出하면 營陰이 外泄되어 자연히 營弱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112.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臥起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6]. 病邪가 表에 있는데 火法으로 억지로 發汗하면서 亡陽이 온 것으로, 火熱에 의해 神明이 擾亂하여 驚狂, 臥起不安의 症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原文 : 設若飧泄不止 日夜無度 完穀下出 發汗可也 內經曰 春傷於風 夏生飧泄 此以風爲根 風非汗不出 昔有人病此者 腹中雷鳴泄注 米穀不分 小便澁滯 皆曰脾胃虛寒故耳 豆寇烏梅罌粟殼乾薑附子 曾無一效 中脘臍下 灸已數十 燥熱轉甚 小溲涸竭 瘦削無力 飮食減少 命予視之 余以謂應象論曰 熱氣在下 水穀不分 化生飧泄 寒氣在上 則生膜脹 而氣不散何也 陰靜而陽動故也 診其兩手脈息 俱浮大而長 身表微熱 而桂枝麻黃湯 以薑棗煎大劑 連進三服 汗出終日 至旦而愈 次以胃風湯 和平臟腑 調養陰陽 食進病愈 又貧家一男子 年二十餘 病破傷風搐 牙關緊急 角弓反張 棄之空室 無人問者 時時呻呼 余憐其苦 以風藥投之 口噤不能下 乃從兩鼻竅中灌入咽喉 約一中椀 死中求生 其藥皆大黃甘遂牽牛硝石之類 良久 上涌下泄 吐且三四升 下一二十行 風搐立止 肢體柔和 旦已自能起 口雖開 尙未能言 予又以桂枝麻黃湯三兩 作一服 使啜之 汗出周匝如洗 不三日而痊 又如小兒之病 驚風搐搦 涎潮熱鬱 擧世皆用大驚丸 抱龍丸 鎭心丸等藥間有不愈者 余潛用瓜蒂赤小豆等分 共爲細末 以猪膽汁浸蒸餠爲丸 衣以螺靑或丹砂 以漿水乳汁送之 良久風涎涌出一兩枚 三五日一涌 涌三五次 漸以通聖散稍熱服之 汗縈縈然病日已矣

@ 解釋 : 만약 飧泄不止로 日夜無度하고 完穀下出하면 發汗이 가능하다. 內經에 이르기를 春傷於風하면 夏生飧泄하니 이는 風이 根이 된 것이다. 風은 汗이 아니면 나가지 않으니 옛날에 이것으로 病이 된 사람이 腹中雷鳴泄注 米穀不分 小便澁滯의 症狀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脾胃虛寒한 때문이다. 豆寇 烏梅 罌粟殼 乾薑 附子는 일찍이 效果가 없어 中脘 臍下에 灸 數十壯을 뜨니 燥熱이 도리어 甚해져 小溲涸竭 瘦削無力 飮食減少의 症狀이 나타나 나에게 診察을 의뢰하였다. 내가 應象論을 들어 말하기를 熱氣在下하여 水穀不分 化生飧泄하고 寒氣在上하여 生膜脹하면서 氣不散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陰靜而陽動한 때문이니, 兩手의 脈息이 浮大而長하고 身表微熱하면 桂枝麻黃湯에 薑棗를 넣어 다려 連進三服시켜 하루종일 汗出하게 한즉 새벽녘이 되면 낫게된다. 그 다음으로 胃風湯으로 和平臟腑 調養陰陽시켜 飮食을 먹을 수 있게 되면 病이 나은 것이다. 또 가난한 집안에 20여세 된 한 男子가 破傷風으로 搐搦 牙關緊急 角弓反張 棄之空室無人問者 時時呻呼의 症狀이 있어, 내가 그 苦痛을 불쌍히 여겨 風藥을 投與하려하나 口噤으로 能히 넘기지를 못해 兩鼻竅로부터 咽喉로 約 一中椀의 藥을 흘려 넣어 생명을 求해 주었다. 그 藥은 모두 大黃 甘遂 牽牛 硝石의 種類로 上涌下泄하는데 吐且三四升하고 下一二十行하니 風搐이 곧 멈추고 肢體柔和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이 아직 열리지 않아 말을 잘하지 못하였다. 내가 또 桂枝麻黃湯三兩을 한번에 마시게 하니 땀이 두루 나되 온몸이 세수하듯이 하여 三日이 못되어 나았다. 또한 小兒의 病이 驚風搐搦 涎潮熱鬱하면 대개 大驚丸 抱龍丸 鎭心丸 等藥을 쓰면 좋아지는데, 간혹 낫지 않으면 瓜蒂 赤小豆를 等分細末하여 猪膽汁에 담가두었다가 丸을 지어 螺靑이나 丹砂로 옷을 입혀 漿水 乳汁으로 넘기게 한다. 시간이 좀 지나 風涎涌出一兩枚 三五日一涌 涌三五次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通聖散을 조금 데워 服用시키고 땀이 縈縈하게 나오게된 즉 病이 그치게 된다.

@ 解說 :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 . 寒極生熱, 熱極生寒. 寒氣生濁, 熱氣生淸. 淸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膜脹. 此陰陽反作, 病之逆從也. …… 故重陰必陽, 重陽必陰. 故曰 冬傷於寒, 春必溫病, 春傷於風, 夏生飧泄, 夏傷於暑, 秋必痎瘧, 秋傷於濕, 冬生咳嗽."라 하였는데[4], 張은 熱氣生淸 淸氣在下를 熱氣在下로, 寒氣生濁 濁氣在上을 寒氣在上으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寒極生熱 熱極生寒의 機轉을 도외시한 誤謬가 아닌가 생각된다. 桂枝麻黃湯은 正氣가 虛하고 表邪가 아직 풀리지 않은 病에 사용되는 處方으로 表部로 津液을 散布하여 氣不散한 상태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原文 : 頃又治一狂人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陽幷乃狂 難經曰 重陽者狂 重陰者癲 陽爲腑 陰爲臟 非陽熱而陰寒也 熱幷於陽則狂 狂則生寒 幷於陰則癲 癲則死 內經曰 足陽明有實則狂 故登高而歌 棄衣而走 無所不爲 是熱之極也 以調胃承氣 大作湯下數十行 三五日 復上涌一二升 三五日 又復下之 凡五六十日 下百餘行 吐亦七八度 如吐時暖室置火 以助其熱而汗少解 數汗方平 又治一酒病人 頭痛身熱惡寒 狀類傷寒 診其脈 兩手俱洪大 三兩日不圊 余以防風通聖散約一兩 用水一中椀 生薑二十餘片 葱鬚根二十莖 豆豉一大撮 同煎三五沸 去滓 稍熱 分作二服 先服一服多半 須臾以釵股探引咽中 吐出宿酒 酒之香味尙然 約一兩杓 頭上汗出如洗 次服少半立愈 內經曰 火鬱發之 發爲汗之 令其疎散也

@ 解釋 : 근래 狂人을 治療함에 있어 陰이 약하고 陽의 작용이 너무 强하면 經脈의 흐름이 急速한 상태로 되어, 그것이 甚하면 精神異常을 일으켜 狂亂狀態가 된다. 難經에 이르기를 重陽者狂 重陰者癲이라 하였고, 陽은 腑가 되며 陰은 臟이 되나 陽이 熱이고 陰이 寒인 것은 아니다. 熱幷於陽則狂하게 되고 狂은 生寒하며 幷於陰則癲하게 되며 癲이 나타나면 죽게된다. 內經에 이르기를 足陽明이 實하면 狂이 되는 고로 登高而歌 棄衣而走 無所不爲의 症狀이 나타나니 이는 熱이 極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調胃承氣湯으로 下를 數十行시키고 三五日 후에 다시 上涌一二升하고 三五日 후에 또다시 下시키니, 무릇 五六十日에 下가 百餘行이고 吐가 역시 七八度라. 吐時에는 따뜻한 室內에 火爐를 같이 두어 그 熱을 도와 자주 땀을 흘리도록 해주면 바야흐로 평안해질 것이다. 또 술로 病이 된 사람을 治療하였는데, 頭痛身熱惡寒의 症狀이 마치 類傷寒처럼 나타났으며 診脈을 해보니 兩手脈이 모두 洪大하여 三兩日이 되어도 개운치가 않았다. 내가 防風通聖散 約一兩에 水一中椀 生薑二十餘片 葱鬚根二十莖 豆豉一大撮을 넣고 同煎三五沸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조금 따뜻하게 해서 두 번에 나누어 服用시키되, 먼저 半 以上을 服用한 다음 비녀 같은 것을 이용해 咽中에 자극을 줌으로서 吐出宿酒케 하였는데 酒之香味가 아직 남아있으면서 頭上汗出이 마치 세수하는 것과 같다면, 다시 나머지 半以下 정도의 분량을 服用시키면 곧 낫게 된다. 內經에 이르기를 火가 鬱한 것은 發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發은 汗法을 씀으로서 疎散하게 하는 것이다.

@ 解說 : [素問·生氣通天論]에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幷乃狂"[4]이라 하였으니 薄厥은 搏疾의 誤謬로 생각된다. [素問·陽明脈解篇]에서는 "陽明主肉, 其脈血氣盛, 邪客之則熱, 熱甚則惡火. …… 病甚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至不食數日, 踰垣上屋, 所上之處, 皆非其素所能也"[4]라 하였으니, 이는 多血多氣한 經脈에 邪熱이 加해져 온몸에 熱氣가 넘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病의 經過는 陽에서 陰으로, 狂에서 癲으로 진행되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邪氣가 侵入하게 되면 "先治者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腑, 其次治五臟. 治五臟者, 半死半生也."[4]라 하여, 病이 臟에 이르렀을 때 危急해짐을 설명하고 있다. [素問·六元正紀大論] "帝曰 鬱之甚者治之奈何. 岐伯曰 木鬱達之,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 然調其氣, 過者折之, 以其畏也, 所謂寫之."[4]

[傷寒論] 70. 發汗後, 惡寒者, 虛故也; 不惡寒, 但熱者, 實也,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6]. 不惡寒하면서 發熱이 있는 것은 發汗 후 傷津하여 陽明胃腸이 燥實해져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207.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可與調胃承氣湯6). 吐下法을 쓰지 않았는데도 心煩이 있는 것은 胃腸에 燥熱이 있기 때문이다. 248.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6]. 發汗 후에도 發熱

이 풀리지 않는 것은 邪氣가 陽明胃腸에 전해진 때문으로 생각된다.

@ 原文 : 又嘗治一稅官 病風寒濕痺 腰脚沈重浮腫 夜則痛甚 兩足惡寒 經五六月間 猶綿脛靴足 腰膝皮膚 少有跣露則冷風襲之 流入經絡 其痛轉劇 走注上下 往來無定 其痛極處 便摩急而腫起 肉色不變 腠理間如蟲行 每遇風冷 病必轉增 飮食轉減 肢體瘦乏 須人扶掖 猶能行立 所服者 烏附薑桂 種種燥熱 燔針着灸 莫知其數 前後三年 不獲一愈 一日命予脈之 其兩手皆沈滑有力 先以導水丸 通經散各一服 是夜瀉三十餘行 痛減半 遂漸服赤茯苓湯 川芎湯 防風湯 此三方在宣明論中 治痺方是也 日三服 煎七八錢 縈縈然汗出 余又作玲瓏窻法薰蒸 血熱病必增劇 諸汗法古方亦多有之 惟以此發汗者 世罕知之 故予嘗曰 吐法兼汗 良以此夫

@ 解釋 : 일찍이 稅官을 治療하였는데 病은 風寒濕痺로 腰脚이 沈重浮腫 夜則痛甚 兩足惡寒의 症狀이 있으면서 五六月을 經過하여 오히려 정강이는 가늘게 이어지고 발은 가죽신을 신은 것처럼 되었다. 腰膝皮膚는 조금만 맨발로 이슬을 맞아도 冷風이 侵襲해 流入經絡하여 그 痛症이 劇甚해져 走注上下하는 것이 定해진 곳이 없으며, 때로 그 極甚한 痛症이 머무는 곳은 곧 腫氣가 일어나고 肉色은 變하지 않았으나 腠理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매번 風冷을 만날 때마다 病이 반드시 甚해져 飮食轉減 肢體瘦乏하게되니 모름지기 사람이 옆에서 도와야만 걸을 수 있었다. 藥은 烏附薑桂를 服用하였으며 種種 燥熱이 있고 燔針과 灸를 한 것이 그 數를 헤아릴 수 없었다. 前後三年 동안 한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 나에게 診脈을 청하여왔는데, 兩手脈이 모두 沈滑有力하여 먼저 導水丸 通經散을 各一服시키니 이에 夜瀉三十餘行한 후 痛症이 半으로 줄었고, 이어서 赤茯苓湯 川芎湯 防風湯의 三方을 服用시켰다. 이는 宣明論 中에 있는 治痺方으로, 하루에 三服하고 七八錢을 다려 縈縈하게 땀을 내게 하는 藥이다. 내가 또 玲瓏窻法의 薰蒸法을 만들었으며, 血熱病 症狀이 極烈해지면 諸汗法으로 古方이 역시 많이 사용된다. 오직 發汗法에 대해 세상에 아는 사람이 드문 연유로 내가 먼저 말한 것이니, 吐法과 汗法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解說 : [素問·痺論]에서는 痺症이 發生되는 機轉에 대하여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也. 其風氣勝者爲行痺, 寒氣勝者爲痛痺, 濕氣勝者爲着痺也."라 하였다[4]. 이는 風寒濕 三種의 邪氣가 肌表의 經絡과 骨節을 侵犯하여 疼痛을 일으키는 것으로, 風痺는 行痺라고도 하며 疼痛이 游走하여 定處가 없는 특징이 있고, 寒痺는 痛痺라고도 하며 疼痛의 정도가 비교적 極烈하고 寒을 만나면 痛增하고 得熱하면 痛減하는 특징이 있으며, 濕痺는 着痺라고도 하며 肌膚가 麻木되고 關節이 重着되며 腫痛處가 固定不移하는 특징이 있다[7]. 綿脛靴足은 痿症의 表現으로 보여지며, 그 원인은 邪熱이 血液을 灼傷하거나 陽明濕熱이 筋을 傷한 것, 또는 肝腎虧損하여 精血不足으로 筋을 濡養하지 못한 것 등이 있다[7,8]. 病因과 症狀에 따라 筋痿, 脈痿, 骨痿, 肉痿로 분류하며[7], 그 중 위의 症狀은 脈痿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脈痿는 下肢의 肌肉이 萎縮無力하고 脛部가 軟弱해서 서 있을 수 없으며 膝蝶의 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症狀을 가지고 있다[7].

[素問·宣明五氣篇] 五邪所亂, 邪入於陽則狂, 邪入於陰則痺, 搏陽則爲巓疾, 搏陰則爲癌, 陽入之陰則靜, 陰出之陽則怒, 是謂五亂[4].

4. 凡在下者皆可下式

@ 原文 : 下之攻病 人亦所惡聞也 然積聚陳莝于中 留結寒熱於內 留之則是耶 逐之則是耶 內經一書 惟以氣血通流爲貴 世俗庸工 惟以閉塞爲貴 又止知下之爲瀉 又豈知內經之所謂下者 乃所謂補也 陳莝去而腸胃潔 癥瘕盡而榮衛昌 不補之中 有眞補者存焉 然信世俗下之爲補者 蓋庸工妄投下藥 當寒反熱 當熱反寒 未見微功 轉成大害 使聰明之士 亦復不信者此也 所以謂寒藥下者 調胃承氣湯 泄熱之上藥也 大小桃仁承氣 次也 陷胸湯 又其次也 大柴胡又其次也 以涼藥下者 八正散泄熱兼利小溲 洗心散抽熱兼治頭目 黃連解毒散 治內外上下畜熱而不泄者 四物湯涼血而行經者也 神芎丸解上下畜熱而泄者也 以溫藥而下者 無憂散下諸積之上藥也 十棗湯下諸水之上藥也 以熱藥下者 煮黃丸纏金丸之類也 急則用湯 緩則用丸 或以湯送丸 量病之微甚 中病卽止 不必盡劑 過而生愆 仲景曰 大法秋宜瀉 謂秋則陽氣在下 人氣與邪

氣亦在下 故宜下 此仲景言其大概耳 設若春夏有可下之疾 當不下乎 此世上之庸工蹋蹜遷廷 誤人大病者也 皆曰夏月豈敢用過藥瀉脫胃氣 嗚呼 何不達造化之甚也 內經土火之鬱發四之氣 以五月先取化源 瀉土補水 又曰 土鬱則奪之 王太僕注曰 奪謂下之令無壅礙也 然則于五月先防土壅之發 令人下奪 素問之言非敗 然隨證不必下奪 在良工消息之也 矯世俗期不誤大病暴病者耳 故土鬱之爲奪 雖大承氣湯亦無害也 試擧大承氣藥論大黃苦寒通九竅利大小便 除五臟六腑積熱 芒硝鹹寒 破痰散熱潤腸胃 枳實苦寒爲佐使 散滯氣 消痞滿 除腹脹 厚朴辛溫和脾胃 寬中通氣 此四味雖爲下藥 有泄有補 卓然有奇功 劉河間又加甘草以爲三一承氣 以甘和其中 最得仲景之秘也 余嘗以大承氣改作調中湯 加以薑棗煎之 俗見薑棗以爲補脾胃而喜服 不知其中有大黃芒硝也 惡寒喜暖取補 故自古及今 天下皆然 此內經之法抑屈而不伸也 此藥治中滿痞氣不大便者 下五七行殊不困乏 次日必神淸氣快 腸空食進 內經曰 脾爲之使 胃爲之市 人之食飮酸鹹甘苦百種之味 雜湊于此 壅而不行 蕩其舊而新之 亦脾胃之所望也 況中州之人食雜而不勞者乎 中州土也 兼載四象 木金水火 皆聚此中 故脾胃之病 奈何中州之醫不善掃除倉廩 使陳莝積而不去也 猶曰我善補大罪也 此藥有奇功 皆謂服之 便成傷敗 乃好丹而非素者也

@ 解釋 : 下法으로 攻病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積聚 陳莝 또는 寒熱이 머물러 鬱結되어 있으면 그것을 머무르게 하는 일이 옳은가, 아니면 좇아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內經에서는 오직 氣血을 流通시키는 것을 貴하게 여기는데, 세상의 庸工은 오직 閉塞하는 것만을 貴하게 여기며 下하는 것이 瀉法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으니, 內經에서 말하는 下法이 所謂 補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陳莝을 없애 腸胃를 깨끗하게 하고, 癥瘕를 없애 榮衛를 昌盛하게 하면 補하지 않아도 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下가 補가 된다고 하자 세상의 어리석은 醫師들은 下藥을 妄靈되이 投與하여 마땅히 寒해야 할 것을 도리어 熱하게하고 마땅히 熱해야 할 것을 도리어 寒하게 만드니, 약간의 效驗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큰 害를 만들어낸다. 所謂 寒藥 중 下하는 것으로 調胃承氣湯은 泄熱하는 最上의 藥이고, 大小桃仁承氣湯은 그 다음이고, 陷胸湯이 또 그 다음이고, 大柴胡湯이 그 다음이다. 涼藥 중 下하는 것으로 八正散은 泄熱하면서 利小溲를 兼하고, 洗心散은 抽熱하면서 治頭目을 兼하고, 黃連解毒散은 內外上下에 畜熱되어 不泄하는 것을 治療하고, 四物湯은 涼血而行經하고, 神芎丸은 上下의 畜熱을 풀어서 泄하게 한다. 溫藥 중 下하는 것으로 無憂散은 諸積을 下하는 上藥이고, 十棗湯은 諸水를 下하는 上藥이다. 熱藥 중 下하는 것으로는 煮黃丸 禮金丸의 類가 있다. 急한 病이면 湯劑를 사용하고 緩한 病이면 丸劑를 사용한다. 或 湯으로 丸을 넘기는 경우는 病의 微甚을 헤아려야 하고, 그것이 病에 맞으면 그치게 되니, 한 劑를 다하여 허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 仲景이 이르기를 가을에는 마땅히 瀉해야 하는 大法이 있으니 이는 秋則陽氣在下하고 人氣與邪氣亦在下하는 故로 당연히 下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만약 春夏에 下法을 써야될 疾患이 있는데도 下하지 않는 것은 世上의 庸工이 두려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그르쳐 大病이 되니 모두 夏月에 瀉藥을 과도하게 써 胃氣가 奪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하는 때문이다. 內經에 土火之鬱은 四之氣에 發하는 것으로 五月에 먼저 聚合되어 根源이 되므로 瀉土補水하여야 한다고 이르고, 또 土鬱則奪之라고 하였는데 王太僕이 注에서 말하기를 奪은 下之令無壅礙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즉 五月에 먼저 土壅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사람으로 하여금 下奪시키는 것이니 素問의 가르침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그러나 證에 따라서는 下奪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良工에게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世俗의 의사들이 期日에 얽매여 大病이나 暴病을 만들까봐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故로 土鬱이 되어 奪을 하고자 할 때 비록 大承氣湯을 써도 害가 될 바가 없다. 大承氣湯의 藥材를 들어 論해 보면 大黃은 苦寒한 藥으로 通九竅 利大小便하여 五臟六腑의 積熱을 제거하고, 芒硝는 鹹寒한 藥으로 破痰散熱 潤腸胃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枳實은 苦寒한 藥으로 佐使藥이 되어 散滯氣 消痞滿 除腹脹의 효능이 있고, 厚朴은 辛溫한 藥으로 和脾胃 寬中通氣의 효능이 있으니, 이 四味가 비록 下藥이긴 하지만 泄하기도 하고 補하기도 하는 탁월한 奇功이 있다. 劉河間은 여기에 甘草를 加하여 三一承氣湯으로 삼으니, 甘味로 中焦를 調和롭게 함으로서 仲景의 지극한 秘法을 얻은 것이다. 내가 일

찍이 大承氣湯을 고쳐서 薑棗를 加한 調中湯을 만들었으니, 세속의 사람들은 薑棗로 補脾胃하여 먹기 좋게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大黃 芒硝가 그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惡寒喜暖을 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왔으나, 이는 內經의 뜻이 억압받고 굴절되어져 펼쳐지지 못한 것이다. 이 藥은 中滿痞氣 不大便을 治療하는 藥으로 下五七行해도 특별히 困乏하지 않고, 次日에는 반드시 神淸氣快하여 胸膈이 시원하고 飮食을 먹을 수 있게 된다. 內經에 이르기를 脾는 使가 되고 胃는 市가 되어 사람이 먹고 마신 酸鹹甘苦의 百種의 味가 여기에서 섞이고 모여 막히면 不行하니 옛것을 씻어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또한 脾胃가 所望하는 바인데, 하물며 사람의 中州에서 음식이 뒤섞여 노력하지 않음에랴. 中州土에는 木金水火의 四象이 겸하여 실려있어 모두 中州에 모이는 故로 脾胃의 病에 어찌 醫師가 倉廩을 잘 掃除하지 않고 陳莝積을 늘어놓아 제거하지 않겠는가.

@ 解說 : 下法의 原則은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土鬱奪之"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因其重而減之, …, 其下者引而竭之."에 起因하며[4], '奪'에 대해 王冰은 "謂下之令無壅碍也"라고 注하였다[1]. 또한 [傷寒論]의 六經下法의 例와 더불어, 張은 下法의 의미를 더욱 深化시켰으니 그의 理論에 따르면 催生, 下乳, 磨積, 逐水, 破經, 泄氣 등 모든 下行하는 것은 下法에 속한다고 하였다[1]. 張이 臨床에서 常用하는 下法은 五種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寒藥攻下: 承氣湯, 陷胸湯, 大柴胡湯; ②涼藥攻下: 八正散, 洗心散, 黃連解毒散, 四物湯, 神芎丸; ③溫藥攻下: 無憂散, 十棗湯; ④熱藥攻下: 煮黃丸, 纏金丸; ⑤調中攻下: 이는 大承氣湯을 改作한 調中湯에 薑棗를 加한 것으로 中滿痞氣不大便의 症狀을 治療한다.

[素問·刺禁論] 臟有要害, 不可不察,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膈肓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殃.[4]

[踡蹜:국축] 등을 웅크리어 펴지 아니함. 몹시 두려워서 몸 둘 곳을 모름[5].

@ 原文 : 或言男子不可久瀉 婦人不可久吐 何妄論之甚也 可吐則吐 可下則下 豈問男女乎 大人小兒一切所傷之物在胃脘 如兩手脈遲而滑者內實也 宜下之 何以別乎 蓋傷宿食者惡食 傷風者惡風 傷寒者惡寒 傷酒者惡酒 至易辨也 故凡宿食在胃脘 皆可下之 則三部脈平 若心下按之而硬滿者猶宜再下之 如傷寒大寒之後 重復勞發而爲病者 蓋下之後熱氣不盡故也 當再下之 若雜病腹中滿痛不止者 此爲內實也 金匱要略曰 痛而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難經曰 痛者爲實 腹中滿痛 裏壅爲實 故可下之 不計雜病傷寒 皆宜急下之 宜大承氣湯 或導水丸 或泄水丸等藥 過十餘行 如痛不已 亦可再服 痛已則止 至如傷寒大汗之後發熱 脈沈實 及寒熱往來 時時有涎嗽者 宜大柴胡湯 加當歸煎服之 下三五行 立愈 產後愼不可作諸虛不足治之 必變作骨蒸寒熱 飮食不入 肌膚瘦削 經水不行 經曰 寒則衰飮食 熱則消肌肉 人病瘦削 皆粗工以藥消礫之故也 嗚呼 人之死者 豈爲命乎 難經曰 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 如此死者 醫殺之耳

@ 解釋 : 男子는 오래 瀉할 수 없으며 婦人은 오래 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妄論이 이렇게 甚할 수 있는가. 吐하여야 되면 吐하고 下하여야 되면 下하는 것이지 어찌 男女를 묻는가. 大人, 小兒할 것 없이 一切 所傷之物이 胃脘에 있고 兩手脈이 遲而滑한 것은 內實한 것으로 마땅히 下하여야 하니 어찌 區別이 있겠는가. 대개 傷宿食者는 惡食하고 傷風者는 惡風하고 傷寒者는 惡寒하고 傷酒者는 惡酒하여 辨別하기 쉬운 故로 무릇 宿食在胃脘하면 모두 下하는 것이 가능한즉 三部脈이 平하고, 만약 心下를 按하여 硬滿한 것이 있으면 역시 再下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傷寒大寒之後에 거듭 勞發하여 病이 된 사람은 대개 下之後에도 熱氣가 不盡한 때문이니 마땅히 再下하도록 한다. 만약 雜病에 腹中滿痛不止한 사람은 內實하여 된 것이다. 金匱要略에 이르기를 痛而腹滿한데 按하여 不痛한 것은 虛이고 痛한 것은 實이다. 難經에 이르기를 痛은 實이 되고 腹中滿痛 裏壅한 것도 實이 되는 故로 下하는 것이 가능하다. 雜病, 傷寒을 헤아리지 말고 모두 急下하여야 되니 大承氣湯이 마땅하고 或 導水丸 泄水丸 等의 藥을 쓰기도 하는데, 十餘行이 지나도록 痛이 멈추지 않고 다시 나타나면 再服하도록 하며 痛이 멈추면 다 나은 것이다. 만약 傷寒大汗之後에 發熱 脈沈實 寒熱往來 時時有涎嗽의 症狀이 있으면 大柴胡湯에 當歸를 加

하여 다려 복용시켜 下 三五行하면 곧 낫게 된다. 産後에는 治療에 있어 諸虛不足을 만들지 않도록 삼가야 되니, 잘못되면 반드시 骨蒸寒熱 飮食不入 肌膚瘦削 經水不行의 症狀이 나타난다. 經에 이르기를 寒하면 飮食이 衰하고 熱하면 肌肉이 消하니, 사람이 病들어 瘦削한 것은 모두 粗工이 藥으로서 消磔한 때문이다. 슬프도다. 사람의 죽음이 어찌 그 命에만 달려있겠는가. 難經에 이르기를 實한 것을 實하게 하고 虛한 것을 虛하게 하고, 不足한 것을 덜고 有餘한 것을 더하여, 이와 같이 하여 죽은 者는 醫가 殺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 解說 : [傷寒論]에서는 "小兒女子 益以滋甚"이라 하여 小兒는 氣血未全으로, 女子는 血室多病으로 邪氣에 쉽게 손상 받아 病이 심해지기 쉽다고 하였다. 遲而滑한 脈은 遲則陰氣盛 滑則胃氣實이므로 內實의 의미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9].

[金匱要略]에서는 "病者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可下之 舌黃未下者 下之黃自去"라 하였으며, 按之心下滿痛者는 實한 것이니 大柴胡湯으로 下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腹滿不減 減不足言하는 것 역시 大承氣湯으로 下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0].

[素問·風論篇] "風者, 善行而數變腠理開則洒然寒, 閉則熱而悶, 其寒也, 則衰飮食, 其熱也, 則消肌肉, 故使人怯慄而不能食, 名曰寒熱."[4]

[難經·八十一難] "經言無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 이는 虛者補之, 實者瀉之의 正治原則을 설명한 것이다[11].

@ 原文 : 以本草考之 下之寒者 有戎鹽之鹹 犀角之酸鹹 滄鹽澤瀉之甘鹹 枳實之苦酸 膩粉之辛 澤漆之苦辛 杏仁之苦甘 下之之微寒者 有猪膽苦 下之大寒者 有牙硝之甘 大黃瓜蒂牽牛苦瓠子藍汁牛膽羊蹄根苗之苦 大戟甘遂之苦 甘朴硝芒硝之苦辛 下之溫者 有檳榔之辛 芫花之苦辛 石蜜之甘 皂角之辛鹹 下之熱者 有巴豆之辛 下之辛涼者 有猪羊血之鹹 下之平者 有郁李仁之酸 桃花萼之苦 右三十味 惟牽牛大戟芫花皂角羊蹄根苦瓠子瓜蒂有小毒 巴豆甘遂膩粉杏仁之有大毒 餘皆無毒

@ 解釋 : 本草를 살펴보면 下하는 藥 중에 寒藥으로는 戎鹽의 鹹味가 있고, 犀角의 酸鹹이 있고, 滄鹽 澤瀉의 甘鹹이 있고, 枳實의 苦酸이 있고, 膩粉의 辛味가 있고, 澤漆의 苦辛이 있고, 杏仁의 苦甘이 있다. 下하는 藥 중에 微寒한 藥으로는 猪膽의 苦味가 있으며, 下하는 藥 중에 大寒한 藥으로는 牙硝의 甘味가 있고, 大黃 瓜蒂 牽牛 苦瓠子 藍汁 牛膽 羊蹄根苗의 苦味가 있고, 大戟 甘遂의 苦味가 있고, 甘朴硝 芒硝의 苦辛味가 있다. 下하는 藥 중에 溫藥으로는 檳榔의 辛味가 있고, 芫花의 苦辛이 있고, 石蜜의 甘味가 있고, 皂角의 辛鹹味가 있다. 下하는 藥 중에 熱藥은 巴豆의 辛味가 있으며, 下하는 藥 중에 辛涼한 藥은 猪羊血의 鹹味가 있으며, 下하는 藥 중에 平藥은 郁李仁의 酸味가 있고, 桃花萼의 苦味가 있다. 위의 三十味 중 오직 牽牛 大戟 芫花 皂角 羊蹄根 苦瓠子 瓜蒂만이 有小毒하고, 巴豆 甘遂 膩粉 杏仁만이 有大毒하며, 나머지는 모두 無毒하다.

@ 解說 : 위의 藥은 張이 常用하는 攻下藥物 30味로서 대개 泄熱, 通便, 利尿, 逐水除濕, 破經逐瘀, 磨積의 效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寒凉藥이 23味를 차지하고 있어 寒凉峻下의 藥을 多用하고 辛熱한 藥을 愼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河間의 學說을 繼承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 原文 : 設若疫氣 冒風中酒 小兒瘡疹 及產後潮熱 中滿敗血 勿用銀粉杏仁大毒之藥 下之必死 不死卽危 且如檳榔犀角皂角皆溫平 可以殺蟲透關節 除腸中風火燥結 大黃芒硝朴硝等鹹寒 可以治傷寒熱病 時氣瘟毒 發班瀉血 燥熱發狂 大作蕩劑 以蕩滌積熱 澤瀉羊蹄苗根牛膽藍葉汁苦瓠子亦苦寒 可以治水腫 遍身腹大如鼓 大小便不利 及目黃濕疳九疸 食癆疳蟲 食土生米等物 分利水濕 通利大小便 蕩滌腸胃間宿穀相搏 又若備急丸 以巴豆乾薑大黃三味 蜜和丸之 亦是下藥 然止可施於辛苦勞力 貧食粗辣之輩 或心腹脹滿 脇肋刺痛 暴痛不住 服五七丸 或十丸 瀉五七行以救急 若施之富貴城郭之人則非矣 此藥用砒石治瘧相類 止可施之於貧食之人 若備急丸 治傷寒風溫 中酒冒風 及小兒瘡疹 產後滿悶用之下膈 不死則危 及夫城郭之人 富貴之家 用此下藥 亦不死則危矣 奈何庸人畏大黃不畏巴豆 粗工喜巴豆而不喜大黃 蓋庸人以巴豆惟熱而不畏 以大黃性寒而畏 粗工以巴豆劑小

而喜 以大黃劑大而不喜 皆不知理而至是也 豈知諸毒中 惟巴豆爲甚 去油置之蠟 猶能下後 使人津液涸竭 留毒不去 胸熱口燥 他病轉生 故下藥以巴豆爲禁 然諸洞泄寒中者 不可下 俗謂休息痢也 傷寒脈浮者 不可下 表裏俱虛者 不宜下 內經中五痞心證 不宜下 厥而脣青 手足冷 內熱深者 宜下寒者 不宜下 以脈別之 小兒內瀉轉生慢驚 及兩目直視魚口出氣者 亦不宜下 若十二經敗甚 亦不宜下 止宜調養 溫以和之 如下則必誤人病耳 若其餘大積大聚 大病大祕 大涸大堅 下藥乃補藥也 余嘗曰 瀉法兼補法 良以此夫

@ 解釋 : 만약 疫氣 冒風 中酒 小兒瘡疹 產後潮熱 中滿敗血이 있으면 銀粉 杏仁의 大毒之藥을 사용하면 안되니, 下之하면 必死하거나 不死하더라도 危殆롭게 된다. 또 檳榔 犀角 皂角은 모두 溫平한 藥으로 殺蟲 透關節 腸中의 風火燥結을 除去한다. 大黃 芒硝 朴硝 等의 藥은 鹹寒한 藥으로 傷寒熱病 時氣瘟毒 發斑瀉血 燥熱發狂을 治療하니 蕩滌積熱의 效能이 있기 때문이다. 澤瀉 羊蹄苗根 牛膽 藍葉汁 苦瓠子 역시 苦寒한 藥으로 水腫 遍身腹大如鼓 大小便不利 目黃濕疳九疸 食癆疳蟲 食土生米等物을 治療하니 分利水濕하여 通利大小便하고 腸胃間의 宿穀相搏한 것을 蕩滌하는 효능이 있다. 備急丸 같은 藥은 巴豆 乾薑 大黃의 三味로 구성되어 蜜和丸한 것으로 역시 下藥이며 止可施於辛苦勞力 貧食粗辣之輩 或心腹脹滿 脇肋刺痛 暴痛不住한데 五七丸내지 十丸을 服用시켜 瀉五七行함으로서 急한 것을 救하게 한다. 단 富貴城郭之人에게 投藥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 藥은 砒石을 사용하여 瘧과 같은 종류의 疾病을 치료하는 藥으로 貧食之人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備急丸을 傷寒風溫 中酒冒風 小兒瘡疹 產後滿悶을 치료하는데 써서 用之下腸하면 죽지 않더라도 위태롭게 된다. 무릇 城郭안에 사는 사람은 富貴한 집안 사람들이니 이런 下藥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죽지 않더라도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이 大黃은 두려워하고 巴豆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粗工은 喜巴豆하고 不喜大黃하니, 대개 사람들은 오직 巴豆가 熱하기 때문에 不畏하고 大黃은 그 性이 寒하기 때문에 畏한다. 粗工은 巴豆가 들어간 藥은 小而喜하고 大黃이 들어간 약은 大而不喜하니 모두 그 理致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 모든 毒 中에서 오직 巴豆가 甚한 것만을 알아 去油시켜 사용하고, 오히려 下後에 津液이 涸竭되어 留毒不去함으로서 胸熱口燥의 症狀이 나타나고 他病으로 轉生하게 되니 故로 下藥으로서 巴豆를 사용하는 것은 禁하여야 한다. 모든 洞泄의 症狀은 寒이 적중한 것이니 下法을 쓰는 것은 不可하고 세속에서는 이를 休息痢라고 부른다. 傷寒脈浮者와 表裏俱虛者도 모두 下法을 쓰는 것이 不可하다. 內經 中에 五痞心證은 下法을 쓸 수 없다고 하였고, 厥而脣青 手足冷 內熱深者는 마땅히 下法을 써야하며, 寒者는 下法이 마땅하지 않으니 脈으로서 辨別한다고 하였다. 小兒內瀉로 慢驚風이 생겨 兩目直視魚口出氣한 것도 역시 下法을 쓰면 안되고, 만약 十二經의 敗가 甚하다면 또한 마땅히 下法을 써서는 안되며, 이는 調養함으로서 그치게 하고 溫함으로서 調和롭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下하면 반드시 사람을 그르쳐 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밖에 大積 大聚 大病 大祕 大涸 大堅은 下藥 및 補藥을 쓰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瀉法에 補法을 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5. 癇

@ 原文 : 夫癇病不至於目瞪如愚者 用三聖散投之 更用大盆一個 於暖室中 令汗下吐三法俱行 次服通聖散 百餘日則餘矣 至於目瞪愚者 不可治 內經曰 神不得守 謂神亂也

@ 解釋 : 癇病이 目瞪如愚에 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은 三聖散을 投與하고 따뜻한 방에서 큰 대접 하나 정도 되게 汗下吐 三法을 俱行하며, 그 다음에 通聖散을 百餘日 服用시키면 낫는다고 하였다. 目瞪愚에 까지 이른 사람은 不治이며, 內經에서 이르기를 "神不得守 謂神亂也"라 하였다.

@ 解說 : 癇의 原因은 痰·火·驚 三者로 정리되며, 歷代 많은 醫家들은 驚이 原因이 되면 安神丸으로 平之시키고, 痰이 原因이 되면 三聖散으로 吐之하며, 火가 原因이 되면 淸神湯으로 凉之시키거나 承氣湯으로 下之시킨다고 하였다[12], 즉 張이 三聖散(防風, 瓜蒂, 藜蘆)의 쓰임을 강조한 것은 癇의 原因으로 痰을 중요하게 인식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6. 頭痛不止

@ 原文 : 夫頭痛不止 乃三陽之受病也 三陽者各分部分頭與項痛者 是足太陽膀胱之經也 攢竹痛 俗呼爲眉稜痛者是也 額角上痛 俗呼爲偏頭痛者 是少陽經也 如痛久不已 則令人喪目 以三陽受病 皆胸膈有宿痰之致然也 先以茶調散吐之後以香蘇飮 白虎湯投之則愈 然頭痛不止 可將葱白豉豆豉湯吐之 吐訖 可服川芎薄荷 辛凉淸上 搜風丸 香芎散之類 仲景曰 葱根豆豉 亦吐傷寒頭痛 叔和云 寸脈急而頭痛是也

@ 解釋 : 頭痛不止는 三陽이 受病한 때문이고, 三陽은 머리를 各 部分으로 나눈 것이다. 頭與項痛者는 足太陽膀胱經에 해당하고, 攢竹痛은 眉稜痛을 말하는 것이다. 額角上痛은 偏頭痛을 말하는 것으로 少陽經에 해당한다. 만약 痛症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喪目하기 쉽게 되니 이는 三陽受病하여 모두 胸膈에 宿痰이 생긴 때문이다. 먼저 茶調散으로 吐한 後에 香蘇飮 白虎湯을 투여하면 좋아진다. 頭痛不止에는 葱白豉豆豉湯으로 吐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吐가 멈춘 후에는 川芎 薄荷로 辛凉淸上하거나 搜風丸 香芎散의 종류를 복용토록 한다. 仲景이 이르기를 葱根 豆豉는 吐法으로 傷寒頭痛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叔和는 寸脈이 急하면 頭痛이라고 말하였다.

@ 解說 : 頭痛을 三陽經으로 구분하면 太陽頭痛은 後頭에서 項部, 陽明頭痛은 前額이나 眉稜, 少陽頭痛은 偏頭部에 나타나는 痛症으로 辨證할 수 있다[12,13]. 三陽受病 이후에 胸膈에 宿痰이 停滯되어 있다는 것은 傷寒論의 六經傳變 過程 중 三陽經의 傳變을 마치고 三陰經 중 太陰經에 邪氣가 入한 때문으로 생각된다[13]. 宿痰은 胸膈上部의 實熱症으로 茶調散, 葱豉湯 類의 處方으로 먼저 熱痰을 吐하게 한 후, 그 다음에 白虎湯 類의 處方을 淸火 목적으로 投與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茶調散은 吐劑에 속하는 處方으로 일명 二仙散이라고도 하며 瓜蔕末과 茶葉末로 구성되어 있다[1].

7. 頭風眩運

@ 原文 : 夫婦人頭風眩運 登車乘船亦眩運眼澁 手麻髮退 健忘喜怒 皆胸中有宿痰之使然也 可用瓜蔕散吐之 吐訖可用長流水煎五苓散 大人參半夏丸 兼常服愈風餠子則愈矣

@ 解釋 : 婦人의 頭風眩運은 登車 乘船할 때처럼 眩運眼澁 手麻髮退 健忘喜怒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모두 胸中에 宿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瓜蔕散으로 吐하게 하고 吐가 멈춘 이후에는 長流水로 다린 五苓散 大人參半夏丸에 愈風餠子를 兼하여 常服하게 하면 회복된다.

@ 解說 : 頭風은 본디 痰飮이 있는 상태에서 沐浴後取凉하거나 久臥當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病이며, 眩運眼澁 手麻髮退 健忘喜怒의 症狀은 風熱로 因한 血燥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12].

8. 發驚潮搐

@ 原文 : 夫小兒三五歲時 或七八歲至十餘歲 發驚潮搐涎如拽鋸 不省人事 目瞪喘急 將欲死者 內經曰 此皆得於母胎中所授 悸惕怕怖 驚駭恐懼之氣 故令小兒輕者爲驚弔 重者爲癇病風搐 爲腹中積熱 爲膿風 已上證候 可用吐涎 及吐之藥 如吐訖 宜用硃犀腦麝淸凉墜涎之藥 若食乳之子 母亦宜服安魂定魄之劑 定志丸之類 如婦人懷孕之日 大忌驚憂悲泣 縱得子 必有諸疾

@ 解釋 : 小兒 三五歲時 或은 七八歲에서 十餘歲에 이를 때까지 發驚潮搐 涎如拽鋸 不省人事 目瞪喘急의 症狀이 곧 죽을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內經에 이르기를 이는 모두 母胎 中에서 悸惕怕怖 驚駭恐懼의 氣를 얻은 때문이라고 하였다. 故로 小兒輕者는 驚弔가 되고 重者는 癇病風搐이 되며 腹中積熱하면 膿風이 된다고 하였다. 위의 證候에는 吐하는 藥을 먼저 사용한 후 吐가 그치면 硃犀腦麝의 淸凉墜涎하는 藥을 사용한다. 만약 젖을 먹는 아이라면 安魂定魄之劑인 定志丸 類의 藥을 服用시키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 婦人이 懷孕하고자 하는 날에는 驚憂悲泣을 大忌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얻게되면 반드시 많은 疾病이 있게된다.

@ 解說 : 위의 症狀은 急驚風 중 痰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痰證의 主症狀은 氣促痰壅, 聲如拽鋸이고, 그의 治療로 吐劑를 鼻中에 吹入하여 噴嚏를 取하는 急救法도 한가지 治療法으로 제시되고 있다[14]. 또한 [素問 · 至眞

要大論] 十九病機 중에 "諸病有聲鼓之如鼓 皆屬於熱"이라 하여4), 痰熱이 원인이 된 경우 吐痰 이후 淸熱의 治法이 여기에 根據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

9. 因驚風搐

@ 原文 : 新寨馬叟 年五十九 因秋欠稅 官杖六十 得驚氣 成風搐已三年矣 病大發 則手足顫掉 不能持物 食則令人代哺 口目張睒 脣舌嚼爛 抖擻之狀 如線引傀儡 每發市人皆聚觀 夜臥發熱 衣被盡去 遍身燥癢 中熱而反外寒 久欲自盡手不能繩 傾產求醫 至破其家而病益堅 叟之子邑中舊小吏也 以父母病訊戴人 戴人曰 此病甚易治 若隆暑時 不過一涌 再涌奪則愈矣 今已秋寒可三之 如未 更刺腧穴必愈 先以通聖散汗之 繼服涌劑 則痰一二升 至晩又下五七行 其疾小愈 待五日 再一涌 出痰三四升 如雞黃成塊 狀如湯熱 叟以手顫不能自探 妻與代探 咽嗌腫傷 昏憒如醉 約一二時許稍稍省 又下數行 立覺是輕 顫減 熱亦不作 是亦能步 手能巾櫛 自持匙箸 未至三涌 病去如濯 病後但覺極寒 戴人曰 當以食補之 久則自退 蓋大疾之去 衛氣未復 故宜以散風導氣之藥 切不可以熱劑溫之 恐反成他病也

@ 解釋 : 新寨馬라는 五十九歲의 노인이 因秋欠稅로 官杖六十에 得驚氣하여 風搐에 걸린지 이미 三年이 되었다. 病이 大發한즉 手足顫掉하여 물건을 잡을 수 없고 飮食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며, 口目張睒 脣舌嚼爛하여 떨어질 것 같은 형상이고 동작이 큰 허수아비 같아 매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夜臥發熱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전신에 燥癢이 있으며 中熱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外寒이 있어 능히 손을 써볼 도리가 없어 마침내 醫師를 求하게 되었으나 病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노인의 아들이 戴人에게 부모의 病을 물어왔다. 戴人이 말하기를 病은 甚하나 治療는 쉽다고 하였으니, 만약 隆暑時라면 한번 吐하고 두 번 吐하여 힘이 奪하면 좋아진다고 하였고, 이미 가을이 되어 寒氣를 만나게 되면 腧穴을 刺하면 필히 낫는다고 하였다. 먼저 通聖散으로 汗之하고 계속해서 涌劑를 복용한즉 痰一二升을 吐하고 다음에 下五七行을 하게되니 그 病이 조금 낫게 된다. 五日을 기다려 다시 한번 吐하여 痰三四升을 내보내니 마치 계란 노른자가 덩어리져 끓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노인이 手顫으로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 부인이 대신 찾아주고 咽嗌腫傷 昏憒如醉한 症狀이 約 一二時간 남짓 되어 조금씩 깨어났으며, 또 下를 數行시키자 바로 깨어나 症狀이 가벼워지면서 顫이 減少하고 熱도 나지 않았다. 또한 步行이 가능하고 손으로 덮을 수도 있게되었으며 수저질도 스스로 할 수 있게되었으니, 三涌에 채 이르기도 전에 病이 씻은 듯이 나았다. 病後에 지극히 寒하다고 느끼자 戴人이 말하기를 飮食으로 補하고 오래되면 스스로 물러간다고 하였다. 대개 大疾이 물러간 이후에는 衛氣가 未復된 故로 마땅히 散風導氣하는 藥을 쓰고 熱劑로 溫之하는 것은 不可하니 반대로 다른 病이 생길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10. 風搐反張

@ 原文 : 呂君玉之妻 年三十餘 病風搐目眩 角弓反張 數日不食 諸醫皆作驚風暗風風癇治之 以天南星雄黃大麻烏附用之 殊無少效 戴人曰 諸風掉眩 皆屬肝木 曲直動搖 風之用也 陽主動 陰主靜 由火盛制金 金衰不能平木 肝木茂而自病 先涌風痰二三升 次以寒劑下十餘行 又以鍼針刺百會穴出血二盃愈

@ 解釋 : 呂君玉의 妻는 三十餘歲 정도 되었는데 風搐目眩 角弓反張 數日不食의 症狀이 있어 많은 醫師들이 모두 驚風 暗風 風癇으로 알고 天南星 雄黃 大麻 烏附 등의 藥을 써서 治療하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戴人이 말하기를 諸風掉眩은 皆屬肝木이고 曲直動搖는 風之用也이며 陽은 主動하고 陰은 主靜한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火盛制金하면 金衰不能平木으로 肝木이 旺盛해져 스스로 病이 드니, 먼저 風痰을 二三升 涌出한 다음 寒劑로 下를 十餘차 行한다. 또 鍼針으로 刺百會穴하여 出血二盃하면 낫는다.

@ 解說 : [素問·至眞要大論]에 "諸風掉眩 皆屬於肝", "諸暴强直 皆屬於風"이라 하였으니[4], 上記 症狀은 風木이 원인이 되어 發生한 病이라 할 수 있고, 風木이 盛해진 결과는 火盛이 원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治法으로 風木에 대해서는 吐法과 下法을, 火盛에 대해서

는 百會穴 刺出血을 제시하고 있다.

11. 搐溺

@ 原文 : 黃如村一叟 兩手搐溺 狀如拽鋸 冬月不能覆被 適戴人之舞陽 道經黃如 不及用藥 針其兩手大指後中注穴上 戴人曰 自肘已上皆無病 惟兩手搐溺 左氏所謂風淫末疾者此也 或刺後谿 手太陽穴也 屈小指握紋盡處是穴也

@ 解釋 : 黃如村의 한 노인이 兩手搐溺 症狀이 있었는데 形象이 마치 拽鋸와 같아 冬月에는 이불을 덮지 못했다. 戴人이 이를 만나 藥을 쓰지 않고 兩手大指後 中注穴上에 針을 놓았다. 戴人이 말하기를 肘 이상으로는 아무런 病이 없고 오직 兩手에만 있는 것이 搐溺이라고 하였다. 左氏는 이르기를 風淫末疾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 手太陽穴인 後谿를 刺하는데, 後谿는 屈小指握紋盡處에 있는 穴이라고 하였다.

@ 解說 : 中注穴은 足少陰腎經과 衝脈의 會穴로 肓兪下 1寸 去腹中行 各5分 處에 위치하며, 手大指後의 經穴은 手陽明大腸經의 經穴인 陽谿와 合谷穴이다[15,16]. 따라서 張의 原文에 誤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搐은 肘臂를 伸縮하는 현상이고 溺은 十指를 開合하는 현상으로 모두 肘關節 이후에서 症狀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14].

12. 驚風

@ 原文 : 戴人常曰 小兒風熱驚搐 乃常病也 常搦時 切戒把捉手足 握持太急 必半身不遂也 氣血偏勝 必痺其一臂 漸成細瘦 至老難治 當其搐時 置一竹簟 鋪之涼地 使小兒寢其上 待其搐 風力行偏經絡 茂極自止 不至傷人

@ 解釋 : 戴人은 항상 말하기를 小兒는 風熱驚搐이 病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搦時에는 手足 잡는 것을 크게 경계해야 하는데 握持太急하다보면 반드시 半身不遂가 된다고 하였다. 氣血偏勝하면 반드시 한쪽 臂에 痺가 생겨 점차 細瘦해져 노인이 되었을 때는 難治가 된다. 마땅히 搐時에는 대나무 자리를 서늘한 곳에 펼쳐놓아 小兒로 하여금 그 위에 눕게 하여 搐하기를 기다리니 風力이 치우쳐 行하는 經絡에서 發作이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스스로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傷하게 된다.

@ 解說 : 驚風의 症狀을 癎疾(epilepsy)과 비교해봤을 때, 癎疾 大發作의 경과는 前兆期, 强直期, 間代性痙攣期, 昏睡期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12,17]. 前兆期에는 대개 정서적 변화로 우울, 초조, 긴장감이나 정신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대부분 불쾌감이 發作時까지 계속돼 환자로 하여금 發作을 충분히 豫知할 수 있게 해준다[12]. 즉 대나무 자리를 깔고 발작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발작으로 昏仆時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자는 뜻이 아닐까 생각되며, 癎의 症狀 특징이 醒後又復發이라고 볼 때[18], 어떤 處置 없이도 症狀의 회복이 기대되어지는데 무리하게 發作狀態를 制壓하려다 보면 筋骨의 損傷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여 半身不遂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13. 狂

@ 原文 : 一叟年六十 值徭役煩擾 而暴發狂 口鼻覺如蟲行 兩手爬搔 數年不已 戴人診其兩手 脈皆洪大如紐繩 斷之曰 口爲飛門 胃爲賁門 曰口者 胃之上源也 鼻者 足陽明經起於鼻交頞之中 旁納太陽 下循鼻柱 交人中 環脣下 交承漿 故其病如是 夫徭役煩擾 便屬火化 火乘陽明經 故發狂 故經言陽明之病 登高而歌 棄衣而走 罵詈不避親疎 又況肝主謀膽主決 徭役迫遽 則財不能支 則肝屢謀而膽屢不能決 屈無所伸 怒無所泄 心火반磚 遂乘陽明金 然胃本屬土 而肝屬木 膽屬相火 火隨木氣而入胃 故暴發狂 乃命置燠室中 涌而汗出 如此三次 內經曰 木鬱則達之 火鬱則發之 良謂此也 又以調胃承氣湯半斤 用水五升 煎半沸 分作二服 大下二十行 血水與瘀血相雜而下數升 取之乃康 以通聖散調其後矣

@ 解釋 : 六十歲가 된 한 노인이 徭役煩擾하면서 갑자기 發狂하여 口鼻覺如蟲行 兩手爬搔의 症狀이 나타난지 이미 數年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戴人이 진찰해보니 兩手脈이 모두 洪大하여 마치 밧줄 같았다. 판단하여 말하기를 口는 飛門이고 胃는 賁門이며, 口는 胃의 上源이고 鼻는 足陽明經이 鼻交頞之中에서 일어나는 곳으로 太陽에 納하고 鼻柱로 下循하여 人中에서 交하고 脣下로 돌아서 承漿에서 交하는 故로 病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대저 徭役煩擾는 곧 火의 變化에 속하는 것으로 火가 乘陽

明經하는 故로 發狂하는 것이다. 經에 말하기를 陽明之病은 登高而歌 棄衣而走 罵詈不避親疎의 症狀이 있다고 하였다. 또 肝主謀 膽主決하니 徭役이 急迫하면 일 처리를 하는데 능히 지탱할 수가 없게된즉 肝은 謀하되 膽은 능히 決할 수 없게돼 屈하되 伸할 수 없고 怒하되 泄할 수 없게된다. 이는 心火가 모름지기 乘陽明金한 때문이다. 胃는 본래 土에 속하고 肝은 木에 속하며 膽은 相火에 속한다. 火가 木氣를 따라 入胃하는 故로 暴發狂하는 것이니 어두운 실내에 두고 涌, 汗出을 약 三次에 걸쳐 行한다. 內經에 이르기를 木鬱則達之 火鬱則發之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름이다. 또 調胃承氣湯 半斤을 水五升으로 다려 반정도로 줄면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복용시키며, 大下 二十行에 血水와 瘀血이 相雜되어 下數升하게되니 이에 건강해지면 通聖散으로 그 후유증을 조리한다.

@ 解說 : [金匱要略]에서는 "心火氣盛則傷肺 肺被傷則金氣不行 金氣不行則肝氣盛 故實脾則肝自愈 此治肝補脾之要妙也"라 하여[10], 肝의 病은 脾를 치료하는데 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의 火乘金 이론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陽明經은 多氣多血한 經으로 [素問·陽明脈解篇]에서는 "陽明病甚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至不食數日 踰垣上屋所上之處 皆非其素所能也"라 하였는데[4] 四肢는 諸陽之本으로 陽盛한즉 四肢가 實해져 능히 登高하는 것이고, 不食하면서 妄走하는 것은 胃의 熱盛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陽明發狂은 胃와 大腸에 實熱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胃의 實熱은 吐法을, 大腸의 實熱은 下法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徭役:요역] 정부에서 구실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5].

14. 笑不止

@ 原文 : 戴人路經古亳 逢一婦 病喜笑不止 已半年矣 衆醫治者 皆無藥術矣 求治于戴人 戴人曰 此易治也 以滄鹽成塊者二兩 余用火燒令通赤 放冷研細 以河水一大椀 同煎至三五沸 放溫分三次啜之 以鈹探於咽中 吐出熱痰五升 次服大劑 黃蓮解毒湯是也 不數日而笑定矣 內經曰 神有餘者笑不休 此所謂神者 心火是也 火得風而成焰 故笑之象也 五行之中 惟火有笑矣

@ 解釋 : 戴人이 路經古亳에서 한 부인을 만났는데 喜笑不止의 病이 있은지 이미 半年이 지났다. 많은 醫師들이 治療를 하였으나 모두 效果가 없어 戴人에게 治療를 요청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이것은 治療하기 쉽다고 하였다. 滄鹽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二兩을 붉은 기운이 돌 때까지 태워 찬 곳에 둔 다음 가루를 내어 河水 一大椀을 같이 넣고 다려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三次에 걸쳐 나누어 服用시킨다. 비녀로 咽中에 자극을 주어 熱痰五升을 吐出시킨 다음 黃蓮解毒湯을 服用시키니 數日이 못되어 웃음이 가라앉았다. 內經에 이르기를 神有餘者는 笑不休하니 여기서 神은 心火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火가 風을 얻어 焰을 이룬 것이니 故로 笑의 형상이 이와 같다. 五行 가운데 오직 火만이 笑에 해당한다.

@ 解說 : 鹽은 吐法에 頻用되는 재료이며, 비녀나 새의 깃털을 이용해 자극을 줌으로서 吐出을 유도하는 引涎法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笑不休의 治療에 있어, 張의 醫案 중에 제시되어진 七情의 相克關係를 이용한 五志相勝治療法 역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素問·調經論]에 "神有餘則笑不休, 神不足則悲."라 하였는데[4], 悲情은 金侮火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15. 頭熱痛

@ 原文 : 丹霞僧 病頭痛 常居暗室 不敢見明 其頭熱痛 以布圍其頭上 置冰於其中 日易數次 熱不能已 諸醫莫識其證 求見戴人 戴人曰 此三陽蓄熱故也 乃置炭火於煖室中 出汗涌吐 三法併行 七日方愈 僧顧從者曰 此神仙手也

@ 解釋 : 丹霞라는 승려가 頭痛이 있어서 항상 暗室에 거처하여 감히 빛을 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頭熱痛은 頭上에 수건을 두르고 그 안에 어름을 둔 것 같았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화가 나타났으나 熱은 없어지지 않았다. 모든 醫師들이 그 證에 대해 알지 못해 戴人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이것은 三陽蓄熱한 때문이니 따뜻한 방에 화로를 두어 出汗涌吐의 二法을 併行하면 七日만에 낫는다고 하였다. 승려가 돌아보며 이는 神仙手라고 말하였다.

@ 解說 : 頭痛一切는 三陽經에 속하며[13], 常居暗室 不敢見明의 症狀이 있는 것으로 보아 瘀血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頭熱痛은 外感邪氣가 上焦에 침입하여 血과 相搏되어 發生된 病으로 생각된다.

16. 熱厥頭痛

@ 原文 : 彭吳張叟 年六十餘歲 病熱厥頭痛 以其用涌藥時已一月間矣 加之以火 其人先利臟腑 年高身困 出門見日而仆 不知人 家人驚惶欲揉撲之 戴人曰 大不可擾 纔與西瓜涼水蜜雪 少頃而蘇 蓋病人年老涌泄 目脈易亂 身體內有炎火 外有太陽 是以自跌 若是擾之 便不救矣 惟安定神思 以涼水投之 待之以靜 靜便屬水 自然無事 若他醫必惑 足以知戴人之諳練

@ 解釋 : 彭吳張이란 六十餘歲된 노인이 熱厥頭痛이 있어 涌藥을 사용한지 이미 한달 정도가 되었다. 나이가 많아 身困하고 문을 나서 햇빛을 보면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가족들이 놀라서 주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주 피해야 될 일이니 이어서 西瓜 涼水 蜜雪과 차조기를 조금 넣어서 服用시킨다. 대개 病人은 年老하여 涌泄하면 目脈易亂하고 身體內에 炎火가 있는데 바깥에 또 太陽이 있으니 이로서 스스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어지럽히면 곧 救할 수 없게되니 오직 神思를 安定시키고 涼水를 投與하여 病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病이 가라앉으면 곧 水에 속하는 것으로 自然히 아무 일도 없게 될 것이다. 만약 醫師가 필히 미혹한 점이 있다면 戴人의 말을 외우고 익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解說 : 熱厥頭痛의 원인은 積熱火氣上攻이며, 風寒을 쐬면 痛症이 暫止하다가 다시 溫暖한 곳에 있거나 煙火만 보아도 痛症이 再發하는 특징이 있다[12,19]. 즉 1달여 동안 지속된 吐法으로 氣力이 衰해진 노인에게 있어 外熱內火의 자극이 跌仆損傷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은 吐法 禁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17. 嘔逆不食

@ 原文 : 柏亭王論夫 本因喪子 憂抑不思飮食 醫者不察以爲胃冷 血燥之劑 盡用之 病變嘔逆而瘦 求治于戴人 一視涌泄而愈 愈後忘其禁忌 病復作 大小便俱祕 臍腹撮痛 嘔吐不食 一日 大小便不通 十有三日 復問戴人 戴人曰 令先食葵羹菠菱菜猪羊血 以潤燥開結 次與導飮丸二百餘粒 大下結糞 又令恣意飮冰水數升 繼投風丸 桂苓白朮散以調之 食後服導飮丸二十餘粒 不數日 前後皆通 藥止嘔定食進 此人臨別 又留潤腸丸 以防復結 又留滌腸散 大閟則用之 凡服大黃牽牛 四十餘日方瘳 論夫自歎曰 向使又服向日熱藥 已非今日人矣 一僧問 戴人 云 腸者暢也 不暢何以 此一句儘多

@ 解釋 : 柏亭王이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본래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근심이 쌓여 不思飮食의 症狀이 생겼는데 醫師들이 잘못 진찰하여 胃冷으로 因해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血燥之劑를 모두 써, 이윽고 病이 變해 嘔逆而瘦의 症狀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戴人에게 治療를 요청하였다. 戴人이 한번보고 涌泄을 시키면 나을텐데 病이 낫고 난 다음 그 禁忌를 잊어버리면 病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大小便이 모두 막히고 臍腹이 손가락으로 꼬집는 것처럼 아프면서 嘔吐不食하기를 一日, 大小便不通하기를 十有三日하여 다시 戴人에게 물음을 청해왔다. 戴人이 말하기를 먼저 葵羹 菠菱菜 猪羊血을 服用시켜서 潤燥開結하고 그 다음에는 導飮丸 二百餘粒을 투여하여 結糞을 大下토록 하였다. 또 冰水를 마음대로 數升 마시도록 한 다음 이어서 搜風丸을 服用시키고 桂苓白朮散으로 調之하였다. 食後에는 導飮丸 二十餘粒을 服用하게 하면 數日이 지나지 않아 前後가 모두 通하니 藥의 服用을 中止하여도 嘔吐가 가라앉아 飮食을 먹을 수 있게된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또 潤腸丸을 服用함으로서 復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滌腸散은 大閟시에 사용하는데 무릇 大黃 牽牛를 四十餘日 服用하면 病이 좋아진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미 햇빛을 보면서 熱藥을 服用해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한 승려가 戴人에게 묻자 말하기를 腸者暢也이니 不暢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많은 글을 통해 보아왔다고 하였다.

@ 解說 : 상기 患者는 가족관계, 인격경향, 행동양상 및 대인관계 등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神經性食慾不振症(anorexia nervosa)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20,21], 韓醫學에서는 納食, 納滯, 不思食, 飮食欲差 등으로 稱해졌으며 肝氣犯胃, 肝脾不和, 憂思怒過度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22,23,24,25]. 즉 위의 症狀은 七情過度로 肝失條達하여 橫逆犯胃하고 胃氣不降하여 氣機가 上逆됨으로서 嘔吐症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18. 偏頭痛

@ 原文 : 一婦人 年四十餘 病額角上耳上痛 鳴呼 爲偏頭痛 如此五七年 每痛大便燥結如彈丸 兩目赤色 眩運昏澁 不能遠視 世之所謂頭風藥 餠子風藥 白龍丸 芎犀丸之類 連進數服 其痛雖稍愈 則大便稍祕 兩目轉昏澁 其頭上鍼灸數千百矣 連年著灸 其兩目且將失明 由病而無子 一日問戴人 戴人診其兩手 脈急數而有力 風熱之甚也 余識此四五十年矣 遍察病目者 不問男子婦人 患偏正頭痛 必大便澁滯結硬 此無他 頭痛或額角 是三焦相火之經 及陽明燥金勝也 燥金勝乘肝則肝氣鬱 肝氣鬱則氣血壅 氣血壅則上下不通 故燥結於裏 尋至失明 治以大承氣湯 令河水煎三兩 加芒硝一兩 煎殘頓令溫 合作三五服 連服盡 蕩滌腸中垢滯結燥 積熱下池如湯 二十餘行 次服七宣丸 神功丸以潤之 菠菱葵菜猪羊血 爲羹以滑之 後五七日十日 但遇天道晴明 用大承氣湯 夜盡一劑 是痛隨利減也 三劑之外 目豁首輕 燥澤結釋 得三子而終

@ 解釋 : 四十餘歲 정도된 부인이 額角上耳上痛의 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偏頭痛이라고 한다. 五七年 정도 되었는데 매번 痛症이 있으면 大便燥結如彈丸 兩目赤色 眩運昏澁 不能遠視의 症狀이 있어 세상에서 所謂 頭風藥 餠子風藥이라고 하는 白龍丸 芎犀丸의 종류를 연이어서 여러 차례 服用시켰으나 그 痛症이 비록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大便稍祕 兩目轉昏澁의 症狀이 남아있었다. 頭上에 鍼灸數千百하고 이어서 著灸를 하니 兩目이 장차 失明을 하려고 하고 이 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戴人에게 물어와 戴人이 진찰을 해보니 兩手脈이 急數而有力하였는데 이는 風熱이 甚한 것이다. 男子 婦人을 不問하고 患者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 偏正頭痛을 앓고 있으면서 반드시 大便澁滯結硬이 있고 이 밖에 다른 것이 없고 頭痛或額角에 痛症이 나타나면 이는 三焦相火의 經과 陽明燥金이 勝한 때문이다. 燥金이 勝하면 乘肝한즉 肝氣鬱하고 肝氣鬱한즉 氣血壅하고 氣血壅한즉 上下不通하는 故로 燥結於裏하면 보통 失明에 까지 이른다. 治療는 大承氣湯을 다린 다음 河水 三兩에 芒硝 一兩을 풀어 따뜻하게 해서 모두 三五服하도록 하며, 연이어 모두 다 服用하면 腸中의 垢滯結燥를 蕩滌하여 마치 湯처럼 積熱下池하기를 二十餘行하니 그 다음에는 七宣丸 神功丸을 服用해 潤之토록 하고, 菠菱 葵菜 猪羊血으로 국을 만들어 滑之시키기를 五七日十日 정도 한다. 但 天道晴明한 날을 만나면 大承氣湯을 사용하는데 밤이 될 때까지 一劑를 다 服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痛症이 점차 감소되고 二劑를 쓰고 난 후에는 눈이 열리고 머리가 가벼워지며 燥한 것이 潤澤해지고 結한 것이 풀리니 이 三子를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 解說 : 偏頭部는 少陽經이 流注하는 곳으로 少陽相火에 의해 火克金하고 金克木하여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됨으로서 氣機不通한 것이 원인이 되어 偏頭痛이 發生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治療로 蕩滌下之, 潤之, 滑之함으로서 燥結於裏한 것을 풀어낸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右偏頭痛은 痰熱이, 左偏頭痛은 風과 血虛가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偏頭痛은 少陽相火에 속해 오래되면 大便秘澁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6]. 또한 治療에 있어서도 肺乘肝하여 肝氣鬱하고 血壅한 것이 원인이니 마땅히 下法을 쓴다고 하였는데, 비록 痰熱과 風血虛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燥熱上攻하여 偏頭痛을 誘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因憂結塊

@ 原文 : 息城司候 聞父死干賊 乃大悲哭之 罷便覺心痛日增不已 月餘成塊 狀若覆杯 大痛不住 藥皆無功 議用燔鍼灶艾 病人惡之 乃求于戴人 戴人至 適巫者在其傍 乃學巫者雜以狂言以謔病者 至是大笑 不忍 回面向壁 一二日 心下結塊皆散 戴人曰 內經言憂則氣結 喜則百脈舒和 又云 喜勝悲 內經自有此法治之 不知何用鍼灸哉 適足增其痛耳

@ 解釋 : 息城司候가 父親이 賊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悲哭하더니 드디어 心痛을 느끼면서 날로 심해지고 한 달여가 지나니 塊가 생겨 술잔을 엎어놓은 것과 같았다. 疼痛을 견디지 못하고 百藥이 無效하여 戴人이 가서본 후, 무당으로 하여금 患者가 웃음을 참지 못하도록 만들어 心中에 맺혔던 塊가 흩어지게 만들었다. 戴人이 말하기를, "憂하면 氣가 結하고 喜하면 百脈이 舒和하며, 또 喜勝悲라는 것이 內經에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解說 : 위의 醫案은 五行의 相克理論을 心理治療에 應用한 五志相勝治療法 중 火克金의 理致를 應用한 것이다.

[素問 · 陰陽應象大論] "憂傷肺, 喜勝憂"[4]

20. 病怒不食

@ 原文 : 項關令之妻 病食不欲食 常好叫呼怒罵 欲殺左右 惡言不輟 衆醫皆處藥 幾半載尙爾 其夫命戴人視之 戴人曰 此難以藥治 乃使二娼 各塗丹粉 作伶人狀 其婦大笑 次日又令作角觝 又大笑 其旁常以兩箇能食之婦 誇其食美 其婦亦索其食 而爲一嘗之 不數日 怒減食增 不藥而瘥 後得一子 夫醫貴有才 若無才 何足應變無窮

@ 解釋 : 項關令의 妻가 飮食을 먹으려하지 않고 怒罵를 일삼으며 주위 사람을 죽이려 하고 惡談을 그치지 않아 많은 醫師들이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戴人이 診察하여 보니 藥으로 治療될 症狀이 아니라고 判斷하고 두 女子로 하여금 丹粉을 발라 俳優처럼 꾸며 보이기도 하고 씨름꾼 모양으로 차려 보이기도 하니, 그 婦人이 역시 大笑하면서 症狀이 好轉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張은 醫師는 才能이 있어야 하며 藥의 處方에만 執着하여서는 안됨을 强調하였다.

@ 解說 : 역시 五志相勝治療法을 應用한 醫案으로 喜情으로 怒情을 治療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火로서 木을 治療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五志相勝에 의한 治療法 중 悲勝怒(金剋木)의 原理에 어긋남을 알 수 있으니, 이 역시 張이 언급한 바와 같이 醫師의 才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不寐

@ 原文 : 一富家婦人 傷思慮過甚 二年不寐 無藥可療 其夫求戴人治之 戴人曰 兩手脈俱緩 此脾受之也 脾主思故也 乃與其夫 以怒而激之 多取其財 飮酒數日 不處一法而去 其人大怒汗出 是夜困眠 如此者 八九日不寤 自是而食進 脈得其平

@ 解釋 : 한 부유한 집안의 婦人이 思慮過甚으로 二年동안 不寐하였는데 어떤 藥도 효과가 없어 그의 남편이 戴人에게 治療를 요청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兩手脈俱緩하니 이는 脾가 邪를 받은 것이니 脾主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남편과 상의하기를 怒로서 충격을 주기로 하고 재물을 많이 소비하여 數日동안 飮酒하고 가버리니 부인이 大怒汗出하더니 그날 밤 困하게 잠을 자고 또 八九日을 不寤하더니 그로부터 밥을 잘 먹고 脈이 회복되었다.

@ 解說 : 思는 脾情이며 五志相勝治療法의 원칙에 따르면 怒情이 有意的으로 思情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제 臨床例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驚

@ 原文 : 衛德新之妻 旅中宿于樓上 夜値盜劫人燒舍 驚墮牀下 自後每聞有響 則驚倒不知人 家人擧踢足而行 莫敢冒觸有聲 歲餘不痊 諸醫作心病治之 人參珍珠及定志丸 皆無效 戴人見而斷之曰 驚者爲陽 從外入也 恐者爲陰 從內出 驚者 爲自不知故也 恐者 自知也 足少陽膽經屬肝木 膽者敢也 驚怕則膽傷矣 乃命二侍女執其兩手 按高椅之上 當面前 下置一小几 戴人曰 娘子當視此 一木猛擊之 其婦大驚 戴人曰 我以木擊几 何以驚乎 伺少定擊之 驚也緩 又斯須連擊三五次 又以杖擊門 又暗遣人晝背後之窗 徐徐驚定而笑曰 是何治法 戴人曰 內經云 驚者平之 平者常也 平常見之必無驚 是夜使人擊其門窗 自夕達曙 夫驚者 神上越也 從下擊几 使之下視 所以收神也 一二日 雖聞雷亦不驚 德新素不喜戴人 至是終身厭服 如有人言戴人不知醫者 執戈以逐之

@ 解釋 : 衛德新의 妻가 밤에 도둑의 劫辱을 당하고 大驚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상한 소리만 나도 驚倒不省하

여 醫師가 心病으로 알고 治療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이에 戴人이 말하기를 "驚이란 陽으로 從外入하는 것이며, 恐이란 從內出하는 것이고, 驚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恐은 스스로 아는 것이다. 또한 膽이란 勇敢한 것인데 驚怕하면 膽이 傷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婦人으로 하여금 두 손으로 椅子를 집고 구부리게 한 뒤 그 앞에 궤짝을 가져다 놓고 막대기로 큰 소리가 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내려쳐 婦人을 거듭 놀라게 하였다. 四五次 그 方法을 쓰니 점차 놀라는 것이 鎭靜되었다고 하였다. 婦人이 이것이 어떤 治療法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놀란 것을 平하게 해주는 것이니 平이란 平常이란 뜻이다. 무엇이든 平常的으로 보면 아무 것도 놀랄 것이 없다."라고 하였더니, 그날 밤 사람이 그 부인이 자는 방의 창문을 두드려도 혼미하게 자더라는 것이다. 무릇 驚은 神이 위로 넘쳐 날치는 것인데 궤짝을 내려다보게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 神을 收斂하는 것이다. 一二日間 비록 雷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않으니, 이에 이르러 戴人이 醫를 모른다고 하면 쫓아내야 한다.

@ 解說 : 위의 醫案은 韓醫學의 精神療法 중 驚者平之療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驚者平之療法은 不安이나 症狀을 일으키는 原因으로서의 刺戟을 弱한 것으로부터 順次的으로 强한 刺戟으로 주어 이들 刺戟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症狀을 解消시키는 方法이다. 이는 西洋醫學의 系統的脫感作法(systematic desensitization)과 類似하며[12,26], 이 방법은 恐怖症患者에게 특히 有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張은 驚과 恐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구분은 西洋醫學에서도 存在하는데, 바로 fear(두려움)와 anxiety (불안)에 대한 구분으로, fear를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여[12], 韓醫學의 恐의 해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素問・至眞要大論] "寒者熱之, 熱者寒之, 微者逆之, 甚者從之, 堅者削之, 客者除之, 勞者溫之, 結者散之, 留者攻之, 燥者濡之, 急者緩之, 散者收之, 損者溫之, 逸者行之, 驚者平之, 上之下之, 摩之浴之, 薄之劫之, 開之發之, 適事爲故."[4]

23. 兒寐不寤

@ 原文 : 陳州長吏一小兒 病寐而不寤 一日 諸醫作睡驚治之 或欲以艾火灸之 或以大驚丸 及水銀餠子治之 其父曰 此子平日無疾 何緣有驚乎 以子之病 乃問于戴人 戴人診其兩手 脈皆平和 戴人曰 若驚風之脈 當洪大而强 今則平和 非驚風也 戴人竊問其乳母 爾三日前會飮醉酒否 遽然笑曰 夫人以煮酒見餉 酒味甚美 飮一罌而睡 陳酒味甘而戀膈 酒氣滿 乳兒亦醉也 乃剉甘草乾葛花縮砂仁貫衆 煎汁使飮之 立醒

@ 解釋 : 陳州長吏의 小兒가 寐하되 不寤하는 病이 있어 모든 醫師들이 驚으로 治療하거나 或은 艾火로 灸를 하거나 或은 大驚丸 및 水銀餠子로 治療하였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평소에 疾病이 없었는데 어찌 이렇게 자주 놀라는가"라고 하면서 자식의 病에 대해 戴人에게 물어왔다. 戴人이 진찰해보니 兩手脈이 모두 平和로와 戴人이 말하기를 "만약 驚風의 脈이라면 마땅히 洪大而强해야 하지만 지금 脈이 平和로우니 驚風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戴人이 몰래 乳母에게 三日前 모임에서 술을 醉하도록 마시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았다. 황급히 웃으면서 말하기를 잘 익은 술을 보았는데 酒味가 너무 좋아 한 항아리 마시고 잠을 잤다고 하였으니, 酒氣가 가득 차 역시 乳兒도 醉하였던 것이다. 이에 甘草 乾葛花 縮砂仁 貫衆을 다려 汁을 내 마시도록 했더니 이내 깨어났다.

@ 解說 : 젖을 통해 酒氣가 小兒에게 傳해진 것에 대한 醫案으로 역시 治療에 있어서도 酒傷症의 治療藥物을 投與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 나타난 現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脈과 發病動機에 대한 자세한 問診이 필요함을 强調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24. 懷恐脇痛

@ 原文 : 洛陽孫伯英 因誣獄 妻子被繫 逃于故人 是夜覺胃脇痛 託故人求藥 故人曰 有名醫張戴人適在焉 當與公同往 時戴人宿酒未醒 强呼之 故人曰 吾有一親人 病欲求診戴人隔窗望見伯英曰 此公伏大驚恐 故人曰 何以知之 戴人曰 面靑脫色 膽受怖也 後會赦乃出 方告戴人

@ 解釋 : 洛陽의 孫伯英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할 것 같아 그의 妻子와 함께 故人에게로 몸을 피하였는데 밤에 갑자기 胃脇痛이 나타나 故人에게 藥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故人이 말하기를 名醫인 張戴人이 머무는 곳에 함께 가보자고 하여 갔는데 마침 戴人은 주막에 머물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아 크게 불러 잠을 깨워 자신의 친한 사람이 病이 있어 진료를 청한다고 하였다. 戴人이 窗을 사이에 두고 伯英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大驚恐한 것이 숨어있다고 하였다. 故人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戴人이 面靑脫色하니 膽이 受怖한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後에 나서면서 戴人에게 용서를 빌었다.

@ 解說 : 脇部는 그 根本이 肝膽二經에 屬하는데, 대개 足少陽膽經이 脇肋으로 循行하기 때문이다. 위 醫案의 내용은 氣鬱脇痛에 대한 것으로, 氣鬱脇痛은 일반적으로 勞心焦思 憂愁思慮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8].

25. 伏驚

@ 原文 : 上渠卜家一男子 年二十八歲 病身弱 四肢無力 面色蒼黃 左脇下身側 上下如臂狀 每發則痛無時 食不減 大便如常 小便微黃 已二三載矣 諸醫計窮 求戴人治之 視其部分 乃足厥陰肝經 兼足少陽膽經也 張曰 甲膽乙肝故靑 其黃者 脾也 診膽脈小 此因驚也 驚則膽受邪 腹中當有驚涎綠水 病人曰 昔曾屯軍被火 自是而疾 戴人夜以舟車百五十丸 瀋川散四五錢 加生薑自然汁 平旦果下綠水四五行 或問大加生薑何也 答曰 辛能伐木也 下後覺微痛 令再下之 比前藥減三之一 又下綠水三四行 痛止思食反有力 戴人謂卜曰 汝妻亦當病 卜曰 太醫未見吾妻 何以知之 曰 爾感此驚幾年矣 卜省曰 當被火時 我正在草堂中熟寐 人驚喚 我睡中驚不能言 火已塞門 我父拽出我火中 今五年矣 張曰 汝膽伏火驚 甲乙乘脾土 是少陽相火乘脾 脾中有熱 故能食而殺穀 熱雖能化穀 其精氣不完 汝必無子 蓋敗經反損婦人 汝妻必手足熱 四肢無力 經血不時 卜曰 吾妻實如此 亦已五年矣 他日 門人因觀內經 言先瀉所不勝 次瀉所勝之論 其法何如 以問張 張曰 且如膽木乘胃土 此土不勝木也 不勝之氣 尋救于子 已土能生庚金 庚爲大腸 味辛者爲金 故大加生薑使伐木 然先不開脾 土無由行也 遂用舟車丸 先通其閉塞之路 是先瀉其所不勝 後用薑汁調瀋川散大下之 次瀉其所勝也 大抵陽干剋陽干 腑剋腑 臟剋臟

@ 解釋 : 上渠卜家에 二十八歲된 男子가 있었는데 身弱 四肢無力 面色蒼黃하면서 左脇下身側의 上下로 臂 같은 형상이 있어 매일 無時로 痛症이 發하고 食不減 大便如常 小便微黃의 病이 있어 이미 藥을 二三載 服用하였다. 모든 醫師들이 궁리 끝에 戴人에게 治療를 求하였다. 그것이 보이는 部分은 곧 足厥陰肝經과 兼하여 足少陽膽經이라, 張이 말하기를 甲膽乙肝은 靑이고 黃은 脾이며, 膽脈은 小하니 이는 驚으로 인한 것으로, 驚한즉 膽受邪하여 腹中에 마땅히 驚涎綠水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病人이 말하기를 예전에 군대가 진을 친 곳에 불이나 이로부터 病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戴人이 밤에 舟車 百五十丸 瀋川散 四五錢에 生薑汁을 더해 服用시키니 平旦에 綠水를 四五行 정도 下하였다. 生薑을 加한 연유를 물으니 答하여 말하기를 辛은 能히 伐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下後에 微痛을 느껴 再下之하기를 前藥에 비해 二分之一로 減하였더니 또 綠水를 二四行 下하면서, 痛症이 멈추고 飮食생각이 나면서 도리어 힘이 생겼다. 戴人이 卜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妻도 역시 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卜이 말하기를 "太醫는 아직 나의 妻도 보지 못하고 어찌 압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이 驚은 이미 몇 년이 경과된 것이라고 하였다. 卜이 깨달으면서 말하기를 불이 났을 당시에 나는 草堂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나 나는 잠을 자던 중이라 놀라서 말문이 막혀있고 불은 이미 門을 막아 나의 아버지가 나를 火中에서 끌어내준지 지금 五年이 지났다고 하였다. 張이 말하기를 "당신의 膽은 火驚에 굴복하였고 甲乙은 乘脾土하였으니 이는 少陽相火가 乘脾한 것으로 脾中에 熱이 있는 것이다. 故로 能히 飮食을 잘 먹으니 비록 熱이 있어 消化는 잘되지만 그 精氣는 不完하여 당신은 반드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고, 대개 敗經이 반대로 婦人을 손상시키니 당신의 妻는 반드시 手足熱 四肢無力 經血不時의 症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卜이 말하기를 자신의 妻가 실제 이런 症狀이 있기를 이미 五年이 경과되었다고 하였다. 他日 門人이 內經을 보고 말하기를 이기지 못하는 바를 先瀉하고 이기

는 바를 次瀉한다고 論하였으니 그 法이 어떠한 것인지를 張에게 물어왔다. 張이 말하기를 膽木은 乘胃土하며 이는 土가 木을 不勝하는 것이고 不勝之氣는 子로부터 찾으니 이미 土가 能히 生庚金하고 庚은 大腸이 되며 味辛은 金이 되는 故로 大加生薑함으로서 伐木하면 먼저 不開脾할 일이 없어 土가 이로 말미암아 行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舟車丸을 사용하여 먼저 그 閉塞之路를 通하게 하니 이는 그 이기지 못하는 바를 先瀉하는 것이고, 後에 薑汁을 사용하면서 滯川散을 조화시켜 大下시키는 것은 그 이기는 바를 次瀉하는 것이다. 大抵 陽은 陽을 剋하고 腑는 腑를 剋하며 臟은 臟을 剋한다.

舟車丸 : 黑丑 四兩, 甘遂 芫花 大戟 各一兩, 大黃 二兩, 靑皮 陳皮 木香 檳榔 各五錢, 輕粉 一錢.[28]

滯川散 : 大黃 牽牛子 郁李仁 各一兩, 芒硝 甘遂 各五錢, 木香 三錢, 入生薑自然汁.[29]

26. 落馬發狂

@ 原文 : 一男子落馬發狂 起則目瞪 狂言不識親疎 棄衣而走 罵言涌出 氣力加倍 三五人不能執縛 燒符作醮 問鬼跳巫 殊不知顧 丹砂牛黃 犀珠腦麝 資財散去 室中蕭然 不遠二百里 而求戴人一往 戴人以車輪埋之地中 約高二丈許 上安之中等車輪 其輞上鑿一穴 如作盆之狀 縛狂病人於其上 使之伏臥 以軟袒襯之 令一大人於下 坐機一枚 以捧攪之 轉千百遭 病人吐出靑黃涎沫 一二斗許 繞車輪數匝 其病人曰 我不能任 可解我下 從其言而解之 索涼水與之 冰水飮數升 狂方罷矣

@ 解釋 : 한 男子가 落馬發狂하여 起則目瞪 狂言不食親疎 棄依而走 罵言湧出 氣力加倍 三五人 不能執縛의 症狀이 나타나 여러 가지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이에 張은 患者를 끈으로 묶어 拘束을 하고, 그 앞에서 몽둥이를 마구 흔들어 患者가 靑黃色 가래침을 1-2斗 吐하도록 한다음, 患者가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시원한 물을 찾게 되면 그 狂이 풀린 것이라고 하였다.

@ 解說 : 위의 醫案은 癲狂 중 狂의 症狀으로 重陽者狂, 즉 熱이 盛해서 오는 症狀이며, 몽둥이를 이용해 吐를 유도해 내는 것은 비녀 등을 이용한 引涎法의 例와 通할 것으로 생각되고, 스스로 氷水를 찾아 數升을 마신다는 것은 熱盛을 풀기 위한 생리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難經 · 二十難] "重陽者狂 重陰者癲 脫陽者見鬼 脫陰者目盲" [素問 · 陽明脈解篇] "岐伯曰 熱盛於身 故棄衣欲走也"

Ⅳ. 結 論

이상 儒門事親의 攻下理論과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의 硏究를 通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張子和의 疾病觀은 邪氣가 自外而入하거나 由內而生함으로서 發病하는 것이지, 본디 사람이 疾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强調하였다.

2. 疾病을 發生시키는 邪氣를 天邪(風寒暑濕燥火) · 地邪(霧露雨雹冰泥) · 人邪(酸苦甘辛鹹淡)의 三類로 구분하였으며, 天邪는 人體의 上部에, 地邪는 人體의 下部에, 人邪는 人體의 中部에서 症狀이 多發함을 밝혔다.

3. 疾病의 治療에 있어 先攻邪, 邪去而後言補의 原則을 제시하였다.

4. 天地人의 邪氣三處에 대해 六淫邪氣의 天邪는 汗而出之하고, 飮食內傷의 人邪는 涌而出之하며, 寒濕固冷의 地邪는 泄而出之라 하여, 汗吐下 三出의 治療原則을 언급하였다.

5. 補法의 濫用을 反對하였으며, 養生에 있어서는 食補를 論하고 治病에 있어서는 藥攻을 論하였다.

6. 汗法은 風寒暑濕諸邪之表證, 感受風邪諸疾, 裏熱鬱表諸疾에 적용되며, [素問 · 陰陽應象大論]의 因其輕而揚之에 理論의 根據를 두고 있다.

7. 吐法은 漉涎 · 引涎 · 噓氣의 三法이 있으며, [素問 · 陰陽應象大論]의 其高者因而越之에 理論의 根據를 두고 있다.

8. 下法에 사용되는 處方을 寒藥 · 凉藥 · 溫藥 · 熱藥 · 調中攻下의 五種으로 분류하였으며, [素問 · 陰陽應象大論]의 因其重而減之, 其下者引而竭之에 理論의 根據를 두고 있다.

9. 醫案에 있어서는 汗吐下 三法을 治療의 中心으로 삼

았으며, 精神治療法인 驚者平之療法과 五志相勝治療法이 重要하게 應用되었다.

參 考 文 獻

1. 成都中醫學院 : 中醫各科學說,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pp.73-81, 1988.
2.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19, 1984.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03,258, 1985.
4. 任應秋 외 :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4,18,20,21,23,75,91,94,95,119, 121,168,229,241, 242, 1986.
5. 張三植 : 大字源, 서울, 三省出版社, p.656, 1991.
6. 文濬典 외 :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p.94,175,213,214,252,419,493,494, 1998.
7. 金賢濟 외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p.477,478,479, 1983.
8. 金庚植 : 東醫臨床指鍼, 서울, 大星文化社, p.85,195, 196,249, 1998.
9. 張機 : 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p.24,39, 1993.
10. 張機 : 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p.1,27,28, 1993.
11. 中國醫學名 : 難經譯釋, 서울, 정담, p.261, 1993.
12. 黃義完 외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121,358,379,381,405,410, pp.412-413, p.666,669, 1987.
13. 成無已 : 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pp.8-9, 1993.
14.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p.178,185, 1988.
15. 全國韓醫科大學校 鍼灸經穴學敎室 :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p.552, 1988.
16. 安榮基 :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p.104,106, 1986.
17. 민성길 : 최신정신의학, 서울, 一潮閣, pp.422-423, 1998.
18. 呂光榮 외 : 中醫腦病證治, 台北, 南天書局, p.116, 1989.
19. 김동일 외 :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출판사, p.705, 1990
20. 李定均 : 精神醫學, 서울, 一潮閣, p.324, 1992.
21. 이근후 : 最新臨床精神醫學, 서울, 하나의학사, pp. 512-515, 1988
22. 中醫研究院 : 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54, 1987.
23. 李鳳敎 : 漢方診斷學(Ⅱ), 서울, 新光文化社, pp.231-232, 1986.
24. 巢元方 : 諸病原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26-627, 1983.
25. 李用粹 : 證治彙補, 臺北, 旋風出版社, p.114, 1976.
26.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204, 1987.
27. 李丙允 : 精神醫學辭典, 서울, 一潮閣, p. 435, 1990.
28. 李尙仁 외 : 方劑學, 서울, 癸丑文化社, p.171, 1979.
29.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401, 1988.